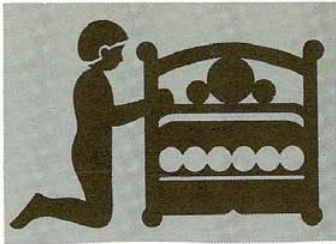


성도의 빛 12
1982



5



38



41



51

성도의 빛 12

1982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엘론 대너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테프트 벨슨
마크 이 피터슨
차 리그랜드 리치즈
하워드 더블류 헨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쿠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메이
조지 피 리
에프 앤지오 부쉬

차례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대관장단..... 1
금식의 축복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2
오바를 살 십일조	캐럴 리치 브라운..... 5
작은 쇠바늘	브랜트 에이 발로우..... 8
크리스마스 카드	돈 워커 네일러.....12
공관 복음서의 복음	로버트 시 패치.....14
질 의 응답21
솔로몬의 행각에서	티 에드가 라이언.....24
약속과 성취	리 시이스코넨.....34
“너는 돌이킨 후에”	제니트 브리감.....38
부름받기 전에	데이빗 알 미켈.....41
봄 간더 이야기	폴 디 캔선.....49
그가 도와 주실 준비를 하고 결에 계심	테드 이 브루어튼 장모.....51
아기 예수의 탄생54
일라의 양초	마조리 알 셰퍼.....55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58
스펜서 더블류 김볼60
지역 지도자 메시지	이 호남 서울 지역 대표.....63
해외 소식65
지역 소식67

성도의 빛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회교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도/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09호, 제18권 제12호
등 록 : 1967년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2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킬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진수

© 1982년
제타 버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

대관장단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탄생을 경하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세상을 이미 떠났거나 살아 있는 수많은 사람의 엄숙한 간증에 덧붙여 우리는 베들레헬 땅에서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요, 구속주이시며, 영원하신 십자가이시며,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이 되심을 재천명하는 바입니다.

구세주로서뿐만 아니라, 구속주로서의 그분의 삶은 어느 시대를 위해서나 평화에 이르는 길을 밝게 비쳐 주었으며, 모든 인간이 지상 생활의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의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 죽음은 정복되었고, 영생의 길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야 할 훌륭한 삶의 형태를 발견하게 되며, 평생을 보내면서 그분에 대하여 명상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닮아 보려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한마디 명령으로 무화과나무를 시들게 할 수 있는 분이었으나 자신의 적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서는 이해할 수도, 참아 낼 수도 없는 비참한 고난을 받으셨으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신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 34)

개인간의 오해이거나 국가간의 분쟁

이거나 간에 다툼을 멀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평화의 왕이신 구세주의 권고의 말씀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마 5: 44-4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개인, 가정 그리고 국가, 곧 모든 세상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요 13: 34 참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는 절기를 맞아 우리는 가난한 자, 가족이 없는 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 도움의 손길을 뻗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치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이 전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돈독히 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율법에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Spencer L. ...
Weldon Janner
Marion R. ...
Donald ...

금식의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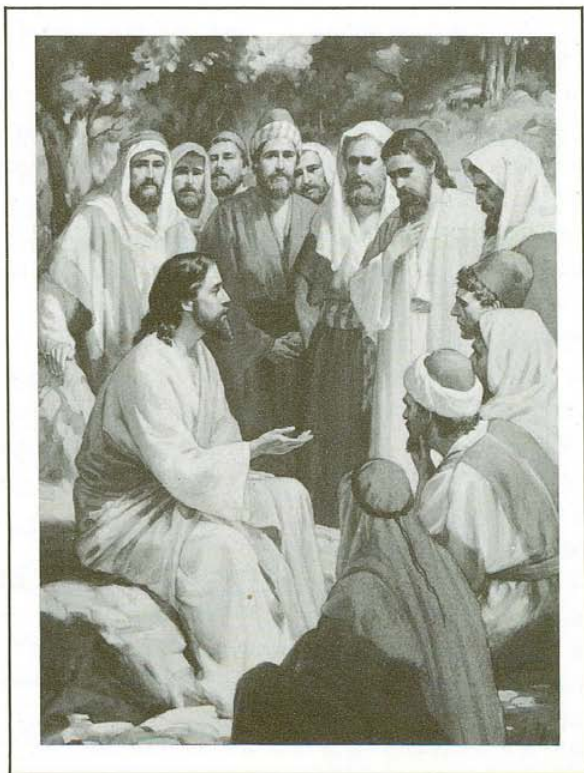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2보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금식 헌금을 후하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효험은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너그러웠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엘 34 : 28 참조)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금

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쩐지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쩐지이니까” 라고 불평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



될 날이라 하겠느냐”(사 58 : 3, 5)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이와 비슷합니까? 우리는 금식하면서 두통을 느끼기 일쑤며, 배가 고파 죽게라도 된 듯한 행동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 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사 58 : 6-10)

얼마나 훌륭한 축복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너그럽게 헌금하는 사람 모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사 58 : 11)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선교사로 성별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인간이 조그만 빵 부스러기 하나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서는 반드시 큰 빵덩어리 하나를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금식의 특성 및 목적과 금식 헌금의 목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하고자 합니다. 만일 말일성도 회원들이 오늘부터 모두 매월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금식한다면……그리고 이에 덧붙여 정직한 십일조를 바친다면 말일성도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끼를 금식하는 말일성도들은 영적인 면에서 큰 축복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굳건히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놀라운 방법으로, 영적인 면에서 축복을 받게 되며, 감독의 손에 쥐어진 충분한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복음 표준, 지호머 더럼,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41년, 123페이지)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하는 행위는 영적인 면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의로운 뜻을 품고 기꺼운 마음으로 주어야 하며 도움을 받는 사람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독이 도움에 관하여 결정할 때에는 영의 확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훌륭한 일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정화되고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그것이 어떠한 책임이든 간에,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로 임한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벧후 1 : 4 참조) 우리의 마음속에 위에서 말씀드린 영이 가득 차 모로나이가 이야기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을 기우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마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허가하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저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일때, 우리가 저와 같이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져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모로 7: 47-48)

우리는 모두 금식에 대하여 좀더 신경을 써야 하겠읍니다. 우리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매어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내쫓은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이런 종류의 마귀가) 나지 아니하느니라”(마 17: 21)

우리는 모두 금식 헌금에 좀더 노력해야 하며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같은 자세를 갖도록 권고하여야 하겠읍니다. “나사로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줄 수 없는 부자가 자기는 해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겠읍니다.”(하이람 엠 스미스, 제니 엠 쇼달 공저, 교리와 성약 주해서, 480페이지) 그러한 영광을 받으려면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 궁핍

한 자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누는 가운데 스스로의 성장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만 주지 마시고 자신의 복지를 위하여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시간을 충분히 바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원하신다면 정직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 크게 번성할 것임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들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약속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금식의 축복에 관한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들에게도 그들의 느낌을 나누도록 한다.

2. 이 기사 중에 가족이 큰소리로 읽고 토론할 경전 구절이나 인용 구절은 없는가?

3. 금식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과의 관계에 대하여 토론한다. (앨 34: 28 참조)

4.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가장과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혹은 정원회 지도자나 감독님이 가장에게 전하는 금식 및 금식 헌금에 대한 말씀은 없는가? *

1886년 12월, 메리 앤 스톡스 리치는 열번째 아이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비통한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임신중의 영양 실조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등이 굽은 어린 아기는 힘없이 울고 있었다. 메리 앤은 이미 비슷한 경우로 아이 넷을 잃었다. 게다가 남편은 아이다호의 캐시아 군에 불모의 농토 조금과 아이 여섯을 남겨둔 채로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슬픔을 억누르며 메리 앤은 아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 고통과 가난 속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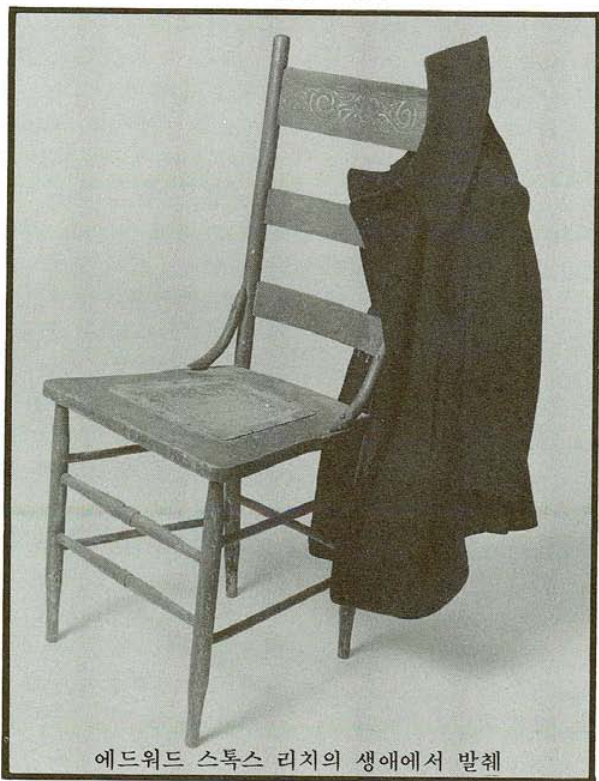
삶을 끝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들의 “생명이 길어져 노년의 자신에게 위안과 축복”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녀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에드워드 스톡스 리치는 어른이 되었으며 메리 앤이 늙어 병약해졌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떠맡았다.

에드워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앤은 아이들을 데리고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하였으며 산파, 요리

오바를 살 십일조

캐럴 리치 브라운



에드워드 스톡스 리치의 생애에서 말채

사, 청소부 등으로 일했다. 그녀의 신통치 않은 수입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었으므로 에드워드는 열두 살 때 학교를 그만 두고 신문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났을 때에, 메리 앤은 아들의 월급에서 십일조로 5달러를 모아 놓고 있었다. “애야, 네 십일조를 아직 내지 못했단다. 그런데, 너는 오바가 없지 않니. 매일 밤 많이 걸어야 하는데,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새벽 네다섯 시에 집에 오려면 얼마나 즐겁니? 그때, 내 이 돈을 너에게 줄 테니 십일조를 내든지 오바를 사든지 네 마음대로 하거라.”

에드워드는 어머니가 믿었던 대로 하였다. 에드워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돈을 받아 가지고는 곧장 감독님백으로 뛰어가 십일조를 바쳤다.”

일주일 후에 메리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자기 아이들에게는 작아 안맞는 오바를 하나 가져 오셨다. 에드워드에게는 꼭 맞을 뿐만 아니라 “5달러로는 살 수도 없는 좋은 것이었다.” 그 이후로 에드워드는 “십일조나 기타 교회 헌금은 언제나 후하게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에드워드가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하였을 때는 불경기여서 좀처럼 직장을 얻기가 어려웠다. 거의 돈이 다 떨어질 때가 되어 이 문제에 대하여 금식 기도를 하기로 하였으며 남은 2달러를 십일조로 바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감독님, 저는 아직 십일조를 낼 수입은 없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만큼 십일조를 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11월 하순이었다.

다음날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솔트레이크시티의 사무실, 회사 등을 돌아

다니면서 직장을 찾았다. 마지막 사무실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사무실 책임자가 부르더니 한 500리쯤 떨어진 유타주 프라이어에 가면 신문사에 일거리가 있다고 알려 주었다.

에드워드는 다음날 프라이어에 도착하였는데, 교통비는 회사측에서 부담하였다. 성탄절까지 시간 외 근무 수당까지를 합쳐 21불 50전을 벌었다. “이미 십일조로 낸 액수에 해당하는 20달러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원하던 크리스마스 선물도 살 수가 있었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다.

일도 열심히 하는데다 훌륭한 신앙과 순종심마저 가졌던 에드워드는 실업가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후에 그는 열 자녀의 아버지로 홀로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굳건해졌다. 막내 아이가 고등 학교에 다닐 때 에드워드는 레오나 하이드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시 에드워드의 나이가 쉰 아홉 살인데다 하이드는 열 아홉 살이나 아래였으므로 자기와 결혼해 달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다. 자기 같은 나이에 또 다른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또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임을 느꼈다.

그는 다른 가족을 부양하였으며, 나는 바로 그 가족에서 태어났다.

홀아비로 있는 동안 나의 아버지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어머니와 결혼하였을 때에는 거의 무일푼의 상태였다. 끔찍한 자동차 사고로 불구의 몸이 되어 출판업자로서의 일을 계

속할 수가 없어 수입이 보장되었는 직업업을 전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십일조와 헌금에 절대로 인색하지 않았다. 옛날에 즐겨 입던 맞춤 양복 대신에 남이 입던 옷도 입어야 했다. 그러나 두 분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씩 저축하여 아담한 집을 한 채 장만할 수가 있었으며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을 시작한 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라도 감독님에 예산이나 건축 기금을 요청할 때에는 감독이 원하는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내놓으셨다. 감독으로 여러 해를 봉사한 바 있는 아버지는 교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께 드릴 수가 없다.”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곤 하였다.

아버지는 여든이 되실 때까지 일하시다가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동안 오래 살라는 축복을 받았다. 아버지는 봄에 피는 튤립과 크로커스를 보고 즐기는 취미로 일년을 더 행복하게 사셨다. 내가 대학 강의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면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들으셨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문학과 천문학에 관하여 즐겨 토론하였다. 그러나 종교 강의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무엇보다도 좋아하셨다. 감독으로 계실 때 아버지는 경전을 매일 공부한다는 목표를 세우셨고, 그후 삼십 팔 년 동안에 물론 경은 일년에 두 번, 다른 표준 경전은 적어도 일년에 한번씩은 읽으셨다.

아버지가 두번째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몇 달밖에 더 사시지 못한다는 의사

의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아버지에게 들리자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는 일주일 후, 주무시는 중에 이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적었다.

“주님께서는 내가 드린 것은 무엇이든지 되돌려주셨다. 그것이 언제나 재정적인 보상은 아니었지만 나는 누구든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주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빛을 지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한다.”

토론 제언

오바를 살 십일조를 읽고 복음 공부 시간에 다음 질문에 대한 토론을 하면 좋을 것이다.

1. 축복이란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거나 다른 제명을 지키면 즉시 오는가?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가?

2. 교회에 바치는 “헌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나 들 수 있는가?

3. 금식과 금식 헌금의 헌납에 대하여 현대에 주어질 권고의 말씀을 읽고 토론한다. 자신 혹은 다른 가족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목표를 세워 개인이나 가족이 중요한 제명을 지키게 할 수가 있을까?

4.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없다.”라는 리치 형제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나는 1970년 12월 초에 우리 와드의 성탄절 기념 성찬식에서 말씀하도록 부탁받았다.

나는 로이드 시 더글러스(미국 루터교회 목사이며 소설가, 1877-1951년)가 쓴 “어느 성탄절 : 위험한 일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인용해서 말했다.

그것은 필 갈랜드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설리와 그들의 두 자녀인 팔리와 유니어에 관한 이야기였다. 필은 어

느 성탄절 전야에 직장을 잃어 풀이 죽어 있었다. 직장이 있을 때에도 그의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어려웠으며 이제는 가망이 없는 것같이 보였다.

그날 밤 설리는 팔리와 유니어와 함께 하는 성탄절 전야 활동에 필도 참여하게 하려 했으나 그는 선물의 가격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았다. 그는 설리에게 것처럼 어려운 재정 상태하에서는 선물을 줄 여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작은 쇠바늘

브렌트 에이 발로우



그는 성탄절이 너무 상업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설리는 팔리와 주니어가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아 주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침실로 갔다.

몇 분 후에 설리는 필이 복도에서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집계를 가져 오라고 소리질렀다. “바늘을 밟았어.”

설리가 집계를 가져 오고 필은 바늘귀를 집계로 꼭 집고는 밭에서 뽑아냈다. 바늘 절반이 부러져 나왔다. 그는 설리와 함께 바늘의 나머지 절반을 빼내기 위하여 곧 병원에 가는 것이 어떻까 하고 의논했다. 그러나 필은 아침까지 참을 수 있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그 다음날 성탄절에 필은 병원까지 차를 몰고 갔으나 문 밖에서 멈췄다. 그는 이전에 어디에선가 만일 작은 금속 조각이 몸에 들어갔는 데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기관으로 들어 가서 죽게 되는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이유로 그는 바늘 조각을 발 속에 박아 두고 어떻게 되는 간에 그 결과를 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조치를 다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 인생이 머지 않아 끝나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사실상 그는 내일 하루를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매일 자기 생활을 가장 유익하게 보내려 노력했다. 그 성탄절에 필은 완전히 변했다. 그는 아내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시간을 내어 팔리와 주니어와 함께 놀아 주었다. 성탄절은 오랫동안 필이 정말로 자기 가족과 가깝게 느낀 첫날이었다.

그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니 오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향유하고자 했다. 그러자 이상하게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드디어 내일이 왔는데도 필 갈랜드는 아직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둘째 날에 그는 유난히 아내와 자녀에게 다정하게 대했는데 그것은 그날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로 필은 매일매일 더 많은 시간을 아내와 자녀와 함께 보내고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매일 임시 직업을 찾아 일했다.

“귀중한 재난”이라는 그 이야기는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1년 후의 성탄절 전야에 끝난다. 이 가족의 성탄절 파티는 필의 행복하고 화평스런 태도로 인해 그 이전의 성탄절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다음해 성탄절을 축하할 만큼 오래 산 것이다.

성탄절 전야에 필은 자녀들과 함께 몇 가지 게임을 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은 각자 한 해 동안에 만든 작은 선물을 교환했다. 필은 몇 달 동안 설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호두나무 바느질 상자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아내에게 보여 주자 아내는 그의 배려에 눈물을 흘렸다.

시계가 새벽 영 시를 알리자 설리는 필에게 작은 상자를 선물로 주었는데 붉은 색 벨벳에 작은 금속 조각을 끼어 넣은 것이었다. 그것은 필이 자기 발에 박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반 토막 바늘이었다. 이 이야기는 설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필의 용서를 빈 것으로 끝난다. 설리는 그 사고가 있는 며칠 후에 그 바늘 나머지 반을 찾아 내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필로 하여금 다

시 가족에게 돌아오게 해주었으므로 비
밀리 간직해 두었던 것이었다.

필은 작년 성탄절 이후로 자신의 생
활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인식하고는 감
사한 마음에 아내를 끌어 안고 기쁜 성
탄절이니 울지 말라고 말했다.

교회 회원들은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은 눈치였으므로, 나는 그 이후로 교
회에서 말씀 지명을 받으면 우리가 우
선 순위를 올바르게 정하고 가족과 즐거
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
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1971년에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기
위하여 일리노이 주로 이사했다. 몇 달
뒤에 나는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것은 더글라스의 이야기를 한번 더 생
생하게 생각나게 해주었다.

그날은 토요일로 교회 역원회에 참석
할 준비를 하기 전에 학생들이 낸 숙제
를 점검해 보려 일찍 일어났다.

겨우 제 시간에 일을 끝내고 모임에
가기 위하여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
으려 홀로 내려갔다.

홀에서 거의 다 나왔을 때 왼쪽발 앞
부분에 갑자기 격렬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너무 아파서 바닥에 넘어져 발을
움켜 쥐었다. 바늘을 뺐은 것이었다.
나는 도와 달라고 소리치자, 아내와 애
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붙들고
앉아 있는 내 곁으로 달려왔다.

그 전체적인 사건은 고통스러울 정도
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아내가
쪽집게를 가져 와서 내가 바늘을 잡아당
겼으나 빠져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즉
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
했다. 나는 발에 바늘이 박혀 있지만

내 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 갈랜드의 경우와는 달리
그 바늘을 빼내야 하느냐 그대로 두어
야 하느냐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응급실로 질름거리며 들어가서
간호원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것은
아침 6시경이었다. 몇 분 후에 의사가
도착해서 예비 진찰을 했다. 그는 바늘
이 발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외과
의사를 불러서 빼내야 한다고 진단했
다. 그는 내게 수술대에 누워서 외과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 다
음 나를 홀로 놔두고 갔다. 나는 거의
45분 동안이나 아무도 없는 수술실에서
기다렸다. 그 동안 나는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득 작년에 플로리다의 탈
라하시에서 성탄절 말씀을 한 내용이
생각났다. 이 얼마나 묘한 일인가! 지
금 여기서 내가 필 갈랜드와 같은 경우
를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 사
람처럼 나도 죽음에 관하여—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외과 의사가 도착해서 발을
진찰하기 시작했다. 나는 “만일 작은
금속 조각이 몸 안에 있는데 그것을 빼
지 않으면 죽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물어 보았다.

그 의사는 미소지으며 대답했다. “그
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그렇지
만 정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선
생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리고 그는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속해
박힌 바늘은 몇 분 이내에 나올 것입니
다.”

그 외과 의사가 발을 치료하는 동안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많이 인용했던 어떤 성구가 다시 마음에 떠올랐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고전 15:22) 상징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몸 안에 작은 금속 조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주님은 그것을 필멸성이라고 하신다. 나도 결국은 죽으리라는 것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인식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나는 집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들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나에게 더 의미가 있었다.

결국 내 발은 다 나았으나 그 경험에서 얻은 선명한 인상은 결코 나에게서 떠난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느 곳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가?

헨리 데이빗 소로우(미국 작가, 1817-1862)의 사상이 내게도 도움이 되었다. 그는 마사추세츠주의 왈든 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숲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생각깊게 생활하고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실만을 대하기를 원했다. 또한 인생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생활하지 않은 것을 죽음에 임박해서야 알게 되지 않기를 원했다.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므로 나는 참다운 인생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미국 문학의 대가들, 보스턴, 호튼 미플린 컴퍼니, 1959년, 405페이지)

이제 성탄절은 나에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개 구세주의 탄

인생의
불확실성과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물건으로서
우리의 확장대
위에 걸려 있다.

생과 생활과 사망과 부활이 모두 더욱 의미가 깊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그 풍성함의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향유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으며 아이들의 조부모님은 늙어 가시며, 이제 우리는 어느 성탄절이나—사실은 매일매일—특별한 날이므로 사소한 근심으로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더 많은 성탄절을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최소한 함께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서점에서 “어느 성탄절 이야기: 위험한 일에서 얻은 값진 교훈”을 찾아 한 권을 샀다. 나는 매년 성탄절기가 되면 이 책을 읽고 내 경험을 회상해보며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경험을 되새겨 본다. 그리고 필 잭랜드의 바늘처럼 내 바늘도 벨벳에 꽂혀서 인생의 불확실성과 우선 순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물건으로서 우리의 확장대 위에 걸려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늘 기억할 귀중한 선물이다. *

크리스마스 카드

돈 워커 네일러

1978년 12월 초였다. 책상에 앉아 크리스마스 카드의 주소를 적고 있는 내 머리 속에는 크리스마스 준비에 대한 생각이 맴돌고 있었다. 나는 내 주소록에 있는 모든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N으로 시작되는 부분에서 솔트레이크시티에 계시는 시아버지의 이름과 주소에 눈길이 뒀었다. 나는 남편인 데이빗이 장차 언젠가는 아버지와 연락을 취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최근에 이 주소를 알아 적어 두었다. 우리는 불과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유타주의 레이턴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여섯 살 때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아버지와 헤어졌다. 당시에 남편의 아버지는 캘리포니아로 이사가서 다시 결혼하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았다. 남편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자랐다. 그는 소년 시절에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여러 해를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거의 30년 동안 서로 전혀 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남편이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비극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회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기억마저 왜곡되었으며 남편은 결코 다시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해 왔다. 그러나 남편의 친

할머니가 남편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남편의 다른 친척들과 계속 연락을 취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할머니로부터 주소를 알았던 것이다.

주소록에 있는 그 이름이 나를 “빨리 올려다 보고” 있었다. 나는 이 주소가 얼마나 쓸모가 없었나 하고 생각했다. 이것은 시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아무런 추억이 없었으며 얼굴 모습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앉아서 그 이름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에 갑자기 나는 이분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만일 그가 우리 편지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우리 생활에 개입시키고 싶지 않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졌으므로 마침내 카드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퇴근하기 전에 편지를 부쳐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알맞은 카드를 골라서 봉투에 주소를 쓰고 간단한 안부와 우리 전화 번호를 적어 보냈다. 결국 그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카드를 부쳤다. 이제 남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결정해야 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남편이 신문을 읽을 때 나는 기회를 엿보았다. 나는 조용히 내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반응을 기다렸다. 아무 반응도 없었다. 다시 내가 한 일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신문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남편의 얼굴 표정에서 그가 합당한 사람과 결혼했는가하는 것을 의심하는 빛이 역력히 나타났다.

며칠이 지난 뒤 나는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대하여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려서 무심히 전화를 받았더니 “나는 데이빗의 애비되는 사람이요.”라고 말하는 어떤 남자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남편의 주의를 끌려고 애를 쓰면서 몇 마디 현명하게 말씀드릴 만한 것을 생각해 내려고 애썼다.

나는 가냘픈 목소리로 “아,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으셨군요.”라고 겨우 말했다. 그러자 내 귀에 떨리는 그의 음성이 들렸다. “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단다.” 나는 간신히 몇 마디 말을 우물거린 다음에 “남편을 바꿔 드릴까요?”라고 말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는 남편에게 수화기를 넘겨 주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이야기중에 재회할 장소와 시간이 정해졌다. 그리고는 초조하고 걱정스런 며칠이 지난 후 우리는 시아버지의 집 현관에 서게 되었

다. 내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떤 남자가 나와서 자기 소개를 했다. 집 안에 들어간 우리는 그의 아내와 가족을 만났으며 남편이 태어나는 것을 지켜 보았으며 그가 어린 아이였을 때를 소상히 기억하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다.

그들은 모두 우리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곧 우리는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방안을 둘러보다가 벽난로 위의 서가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미소짓고 있는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판장의 사진에 눈이 머물렀을 때 우리가 올바른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부자가 상봉한 기쁨을 말로써는 표현할 수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은 내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상봉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소망해 왔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큰 화평과 행복을 느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서로 느끼고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앞으로 만날 계획을 세웠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다시 만나는 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을 인식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남편이 아버지와의 재회한 것을 기뻐하는 동안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찾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반응도 그와 같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늘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다.” *

공관 복음서의 복음

로버트 시 패치

우리가 신약전서의 사복음서를 공부하면서 각 경전의 배경을 토론하면 그 안에 있는 자료를 좀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기사에서 패치 박사는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와 어째서 이 말이 신약전서의 처음 4권의 책에 적용되며 이 네 기사가 서로 다르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에 관한 통일된 간증을 강화하고 보충해 주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편집자 주

복음이라는 말은 회람어를 번역한 것으로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신포 등을 뜻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의 공회당에서 그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기쁨 부음을 받았다고 설명하실 때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하신 것 같다. (누가복음 4:18; 이사야 61:1 참조) 그러나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현대의 계시에 이 의미가 완전하게 나타나 있다. 교리와 성약 76편 4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하여, 세상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멸망의 자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다른 두 계시에서는 복음은 회개의 교리, 침례의 교리 및 “왕국의 평화로

운 것”(교성 39:6)을 배우기 위한 성신의 불에 의한 침례의 교리와 같은 중요한 교리가 포함된다.

물문경에서는 예수님이 택하신 열 두 제자가 교회의 이름을 여주었을 때, 구세주께서 교회가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그의 복음 위에 세워진다면 그의 교회가 되리라고 설명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삼서 27:1-10)

그의 복음에는 이사야서와 교리와 성약에 있는 개념 이외에도 4가지 개념이 더 들어 있다. 즉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과 인간이 심판대에 서게 되며 세상이 심판받으리라는 것과 그가 당신의 사업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교리와 성약

76편 4절부터 44절까지를 보면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하여,

세상을 성결케 하기 위하여,

멸망의 자손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개념이 포함된다.

을 돌리셨다는 것이다. (니삼 27:13—14, 16, 19)

그러므로 현대의 계시에 의하여 보충된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권능을 받은 것으로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2. 그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희생과 사망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정결케 되게 하신다.

3. 예수님은 그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감옥문을 여셨다.

4. 예수님이 지상에 사실 때 인간이 인간을 심판대 앞에 들어 올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간이 인자의 심판을 받도록 인간을 들어 올리실 것이다.

5. 회개하라는 권고를 세상 끝까지 전한다.

6. 신앙과 침례와 성신에 의해서 성결케 된 사람만이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선포는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의 공통적인 의미는 나사렛에서, 물몬경에서, 교리와 성약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공통적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으나 각각 다른 복음에는 없는 자료를 갖고 있다. 사복음서에 일치되는 점이 얼마나 많은가를 살펴보면 재미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매우 비슷하지만 전체적인 면이나 세부적인 면에서 동일하지 않다. 요한의 자료와 견해는 다른 세 복음서와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는 모두 최소한 18개의 동일한 짧은 기록을 갖고 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생애에서 마지막 주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4명의 작가가 모두 4가지만 기록하고 있다. 즉 침례 요한과 그의 복음 전도, 구세주의 침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심, 오천 명을 먹이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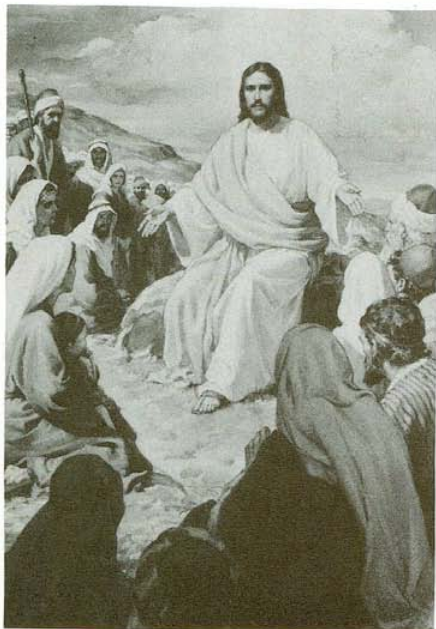
그 외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14가지 일화는 모두 부활이 있기 전주의 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의 있어서 마지막 주 끝, 수난 주일은 신약전서에서 가장 잘 입증된 기록이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14가지 일화는
모두 부활이 있기 전주의 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주 끝,
수난 주일은
신약전서에서
가장 잘 입증된 기록이다.

마 태 복 음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인용이 많다는 것과 중요한 설교를 배열하여 기록했다는 점이다. 마태는 기독교가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예언된 유다 사상이 성취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백 개 이상 구약을 인용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서기관들의 협소한 견해와는 반대로 세상에 전파되게 된 것이다. 마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리라는 것을 이해한 징표로서 구약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 : 19)



의 예언 한 구절을 인용했다. (마태복음 12 : 19-21)

마태복음의 두번째 특징 즉 예수님의 설교를 열거한 것에는 여섯 가지 중요한 설교에서 취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설교는 산상 수훈(마 5-7)으로서 그 저변에는 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마 5 : 13)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 : 14)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두번째 설교는 십이사도를 보내실 때 주어졌다. 이 첫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 : 5-6)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기록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큰 사명을 주실 때 이 일은 전세계로 문이 열렸다.

비유를 모아 놓은 세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다. 혹자는 왜 이런 비유가 염주의 구슬처럼 함께 모여 있는가 하고 의문을 품기도 했다. 첫번째 설명은 교회 정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서 예언자 요셉은 이 설교가 예수님 당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왕국의 사건에 관한 개요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회 정사 제 2권, 264-72 페이지) 세상에 전파되는 진리의 중요성이 이런 비유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가라지의 비유는 배도를 설명한다. 겨자씨의 비유는 말일에 교회가 일어서는 것을 나

마 가 복 음

타낸다. 누룩의 비유는 마침내는 전체적으로 퍼지게 될 이 교회 안의 계시를 나타낸다. 진주의 비유는 시온에서의 상속에 관하여 가르쳐 주며 그물의 비유는 요셉의 후손이 복음을 전세계에 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비유의 의미는 한 지역이나 한 족속에게 한정될 수 없다.

마태복음의 네번째 설교는 죄를 범하는 것과 용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 18장 참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자를 노하게 하거나 실족케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치셨다. 자기 형제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흔 번씩 일곱 번”(마 18 : 22)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태도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다섯번째 설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을 꾸짖고 있다. 마태가 기록한 마지막 설교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가르침이다. (마 24장) 이 장의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은 값진 진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그가 돌아가신 후에 생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표적을 주시고 그것을 말일의 사건과 구체적으로 대조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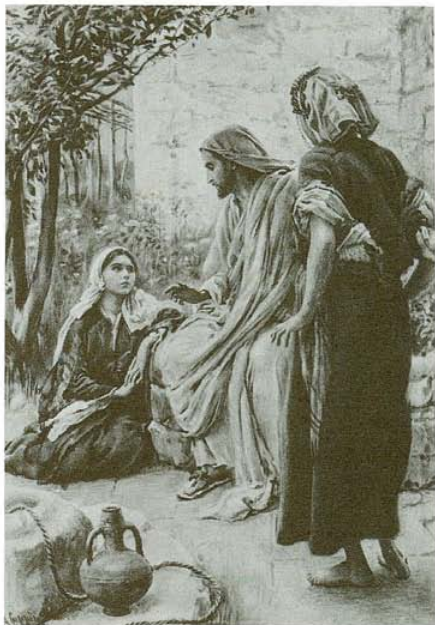
마태는 이 교회가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으며 이것은 큰 사명에 관한 그의 성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19-20)

마가복음은 신약전서에서 가장 짧으며 성서 학자들은 마가가 이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독립된 서술문인 마가복음에는 극적인 장면과 세부적인 묘사와 통찰력이 들어 있다. 마가복음의 첫 구절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가의 기록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며 그의 거룩한 권세와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 마가복음은 대속에 대한 간증이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복음 사상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선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거의 확실히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마가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길 권세를 지니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며, 십이사도를 성임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모세의 청결의 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셨으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증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마가는 “그가 살아나셨고”(막 16:6)라고 천사가 선포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그의 기록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마가는 어떤 주제를 들어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의 성역과 연결시키는 말을 했는가? 갈릴리에서는 성역을 다루는 첫부분에서 우리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언은 길 예비자인 침례 요한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서술하는 데서 마가는 예수님이 진실로 메시아였다는 증거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 즉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음을 전파했으며, 죄를 사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었다. 그가 질병과 영과 사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행사하셨으며,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셨다. 그가 새 언약의 피를 흘린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막 14:24 참조)

마가의 기록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며 그의 거룩한 권세와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 마가복음은 대속에 대한 간증이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일컬어졌다. 그 속에 들어 있는 성탄절 이야기와 탕자의 비유 및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기독교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누가는 초기 시대에 여성이 담당할 역할에 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한편 역사적인 사실과 인간애와 영성을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에 있는 영적인 면은 사도행전에서 똑같이 강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뛰어난 것이다.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업 동반자로서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깊이 이해했으며 메시아의 광범위한 사명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참으

누가복음의 훌륭한 주제는 회개와 용서의 원리이다.



요한복음

로 누가는 모든 인간과 상심한 사람, 속박당한 사람, 눈먼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기록에는 천사가 침례 요한의 사명을 그의 부친 사가랴에게 설명했다고 되어 있으며 사가랴는 나중에 메시야에 관하여 예언했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온 천사에 의하여 그녀의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눅 1:32) 이라고 불리리라는 것을 알았다. 침례 요한의 간증은 “능력이 많으신” 이가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는 그의 복음서의 첫 시작 부분부터 사가랴, 마리아, 시므온, 침례 요한이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누가복음은 가버나움에서 악령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눅 4:34)로 인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 부르신 것과 병고치심과 죄사하심과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것과 변형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가르치신 것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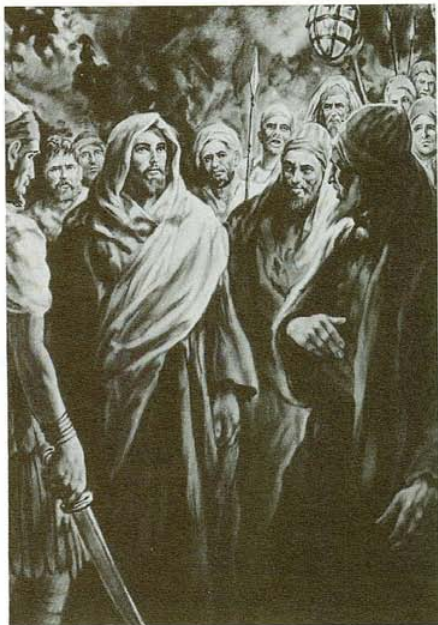
누가복음의 훌륭한 주제는 죄지은 여인 및 중풍걸린 사람의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회개와 용서의 원리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다. (눅 23:34)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세 번 부인한 다음에 용서받았다. 마지막 구절에서는 죄의 회개와 죄사함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눅 24:47 참조)

요한복음은 특별한 방법으로 강조한 간증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0-31) 이 간증의 주제는 독특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간증에 관하여 가르치신 것과 예수님 자신, 침례 요한, 예수님이 성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하신 일 모세(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세는 믿었을 것이다) 및 비록 그들이 그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간증의 근원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구세주께서는 니파이삼서 11장 31절부터 36절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간증하신다고 설명하셨으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그들의 성령의 음성에 귀가 멀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틀림없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참으로 유월절 양이었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말한 침례 요한의 간증을 기록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끌어낸 것으로서 예수님의 성역 기간의 네 번의 유월절을 모두 기술했다.

요한은 병정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고 다른 두 강도에게 한 것과는 달리 그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는 것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요 19:36) 요한은 유월절 희생 양에 관한 가르침을 인용한 것이다. (출애굽기 12:49 참조)

복음, 배도, 증거

마지막 경전이 기록된 후 3세기 동안, 신약전서의 기록이 전 기독교 세계에 퍼졌다. 2세기에 들어와서 4개의 이단 집단 즉 도시티즘(그리스도는 육

체를 가졌을 뿐이며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는 신조), 몬타니즘(자기 내부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고 주장한 몬타니스를 추종한 무리의 신조), 그노시스코(사물은 악이며 악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는 신앙을 통해서만 온다는 신조), 모나키아교(하나님은 한 개체이며 한 인격체라는 신조) 등에서 기존의 기독교회에게 깨어진 권위를 보호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1세기의 사도의 기록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 기간에 논쟁이 된 책에는 요한계시록,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삼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히브리서는 로마에서 받아들여지기 2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받아들여졌다. 반면에 디다체(Didache: 베드로의 계시록), 헤르마의 목자(바나바와 클레멘트 1세의 서한)는 처음에는 받아들여졌다가 후에 거부되었다. 이 이단과 배도와 분열의 시기에 신약전서 복음서의 종교적인 권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논쟁이 되지 않았다.

신약전서 복음서의 종교적인 권세는 증거에 의지하고 있다. 마태는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야 한다고 간증했다. 마가는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것을 간증했다. 누가는 죄사함을 간증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의 상징이 성취되었다는 증거다. 니파이삼서는 성별에 대하여 간증했다. 교리와 성약은 심판에 대하여 간증했다.

이 모든 기록은 부활에 대하여 간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요한일서 5:9) *



몬테 에스 나이먼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부교수.

산상 수훈은

단편적인 형식을 띄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문학 형식에서
이런 예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통일되지 않은 것같이
보일 따름입니까? 아니면
기록과 전달에 따르는 문제입니까?

산상 수훈은 단편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산상 수훈은 한번에 가르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설교로부터 기억되고 보존된 격언, 금언,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성서 해석, 제1권, 279페이지, 155—164 페이지 참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물론 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에 나파이인을 방문하실 때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셨으며(니삼 12—14장 참조)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가르친 바를 너희가 들었으니”(니삼 15: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 말씀이 산상 수훈을 한번에 가르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가 나파이인에게 한번에 다 가르치셨다는 사실은 전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더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왜 이 수훈이 단편적인 것으로 보입니까? 몇 가지 설명을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산상 수훈은 히브리나 회랍의 철학적인 기록과 비교되어 왔지만 그 자체가 독특한 저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것으로 보이는 까닭은 그 내용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도 물론 경의 기록에서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간결하고 중요한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니일 13:23—29 참조) 사실이 이렇다는 것과 그 차이는 단순히 이 두 가지 수훈의 차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에 물론경에 있는 설교의 가르침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에서 나타납니다. 산상 수훈을 기록과 전달에 의하여 파생되는 문제라고 변명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과 삭감과 잘못된 번역의 희생물이 된 기록의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산상 수훈은 그 부분 부분이 서로 다른 청중에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부분(마 5:1—6:24; 니삼 12:1—13:24)은 모인 무리에게 설교한 것입니다. 물론경에서 구세주께서는 십이사도를 먼

산상 수훈은 그 부분 부분이 서로 다른 청중에게 한 것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가르치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니삼 11: 21-41) 두번째 부분(마 6: 25-34; 니삼 13: 25-34)은 그가 택하신 십이사도에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세번째 부분은 다시 무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 수훈에서 각각 다른 세 부분은 십이 사도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분리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산상 수훈이 더욱 단편적으로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갑작스럽게 주제를 바꾼 데서 연유된 것입니다. 팔복, 청중을 소금과 빛으로 비유한 것, 율법의 성취, 율법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비교하는 것은 모두 마태복음 5장에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니파이인에게 행하신 설교는 구세주께서 무리에게 “내게 오라”(니삼 11: 14, 12: 3, 19, 20, 23 참조)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주제를 그가 가르치시는 원리와 연결시킴으로써 물몬경에 기록된 설교가 침례받은 교회 회원의 역할에 관한 훌륭한 말씀이 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쌍히도 이 훌륭한 산상 수훈의 통일된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이 회복된 간결하고 값진 진리를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물몬경의 내용을 연구하여 산상 수훈을 좀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박사
브리감 영 대학교 역사 및
고대 경전과 교수

왜 공관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상세한 부분에 관하여 그처럼 불완전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복음서만이 전세에서 예수님이 위대하셨던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또한 두 복음서에서만 그의 기적적인 탄생에 관하여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복음서에서는 그의 생애에서 단 한번의 유월절만 이야기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그가 성역을 베푸신 것에 관한 완전한 시사는 네번째 복음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기록은 전기로 꾸며지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록으로 남기려 했을까요?

요셉 스미스는 마태의 “간증”, 요한의 “간증”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밝혀 주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에 있는 이들 변경 사항은 각 복음서의 독특한 성격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작가는 모두 근본적으로 요한과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였으며 그의 말은 “간증” 및 “간증한다”고 특징지어졌습니다. 신약전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직접적인 지식에 관한 말(마태리아 및 마태오의 70퍼센트는 요한의 기록에 있으며 그는 자기가 직접 알고 있는 사실을 간증하는 사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부분(“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 1: 14)과 요한일서의 시작되는 부분(“우리가……눈으로 본 바요……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요한일서 1: 1)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복음서 저자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요 20: 31) 기록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기록은 역사가 아니고 간증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실상 요한은 복음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바대로 그의 간증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기사가 복음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회람어의 에우안젤리온은 “메시지” 또는 “선포”에 해당하는 안젤리아로부터 “기쁜” 또는 “좋은”이라는 의미의 접두사가 덧붙여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복음의 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사는 복음과 그가 사망과 죄를 극복하셨다는 훌륭한 메시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이 결론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사망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 결론 그 자체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과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의 마지막 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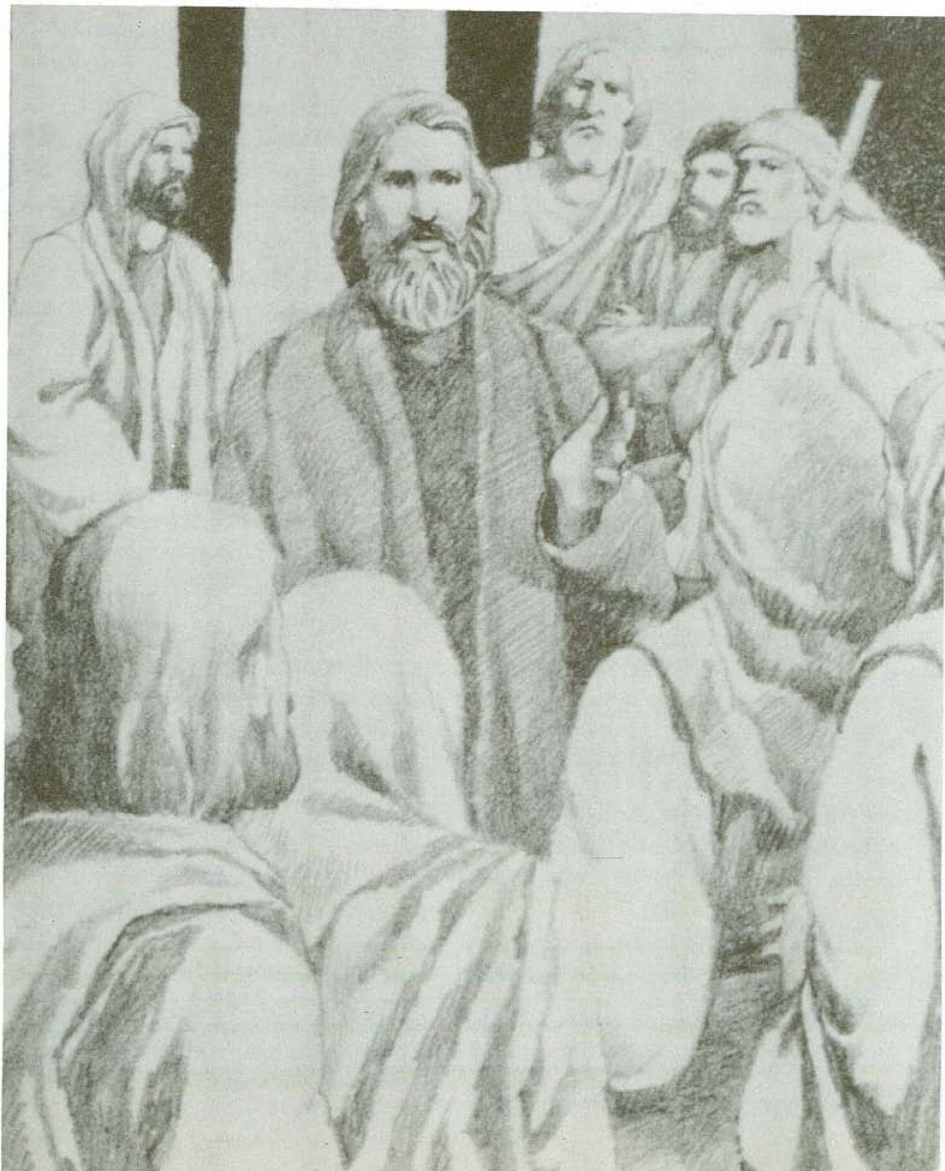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모두 우리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복음서는 생활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진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알려 주는데 그것은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며 하나님이 그를 보내사 그가 그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셨고 그의 교회에 권능을 지셨고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희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길을 닦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줍니다. 이 훌륭한 이야기가 신약전서의 사복음서의 개요이며 간증입니다. *

솔로몬의 행각에서

티 에드가 라이언

사도가 다스릴 당시의 교회에 대한 관찰

20세기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회의 초창기의 역사를 다시 정립하는 중에 1세기경의 한 저자의 공헌을 알게 되었다. 이 저자는 누가라는 이름의 의사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사실상 그의 저서는 두 권으로 된



기독교의 기초가 놓인 것에 관한 역사이다.

우리는 누가의 공헌에 감사하면서도 그가 기록해 주었더라면 하고 바라는 것도 많이 있다. 그는 예수님 당시의 교회의 정식 조직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았으며 역원의 이름이나 그들의 직책이나 권능의 위치를 밝히지도 않았다. 그는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 사회의 명칭을 밝히지도 않았고 성전과 그 주변 및 테워인 제사장이 매일 바치는 희생 제물 또는 유대인 안식일에 관한 그들의 태도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필경 누가가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헌정한 데오빌로가 이런 사실을 모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교회의 성장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끝난 시기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 사회에 관하여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감람산으로부터 승천하신 뒤에 “한 일백 이십 명”(행 1:15)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인 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하여 살아 있는 사도들이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직분에 필요한 두 가지 자질을 제시했다. 구세

주가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부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사람의 후보자를 찾았는데 둘 다 똑같이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기도하여 그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못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행 1:24) 되는지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했다.

그들은 영감을 받아 맛디아를 선택하여 그가 십이사도의 빈 자리를 채웠다. 사도들이 이 교회는 인간의 판단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유의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유대인의 오순절 절기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다. 누가는 그 기념할 만한 날에 로마 제국의 15개 지방이나 속국으로부터 온 열성적인 수많은 외국계 유대인과 일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어떤 장소에 모였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날 놀라운 방언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였다. 청중은 갈릴리 사람인 사도들이(행 2:7 참조) 청중이 쓰는 언어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행 2:1-37 참조)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던 후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이 세상의 구속주라는 것을 간증하면서 메시야인 예수에 대하여 훌륭하게 요약해서 이야기했다. 청중은 곧 예수를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인간의 판단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유의할 것이다.

방법을 베드로에게 물었다. 그 대답으로 베드로는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쳤으며 누가는 그날 “삼천이나” 더 되는 사람이 침례받고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왔다고 기록했다. (행 2 : 37-42 참조)

얼마 후에 또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는 뒤 더 많은 개종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행 3 : 1)에 성전으로 갔다. 그들이 성전 광장에 들어서자 문에 있던 한 거지가 베드로에게 돈을 구걸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한 후에 날 때부터 앓은뱅이었던 그 사람을 고쳐 주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았으며 수많은 유대인이 이방인의 딸의 광장에 모였다. (행 3 : 11 참조)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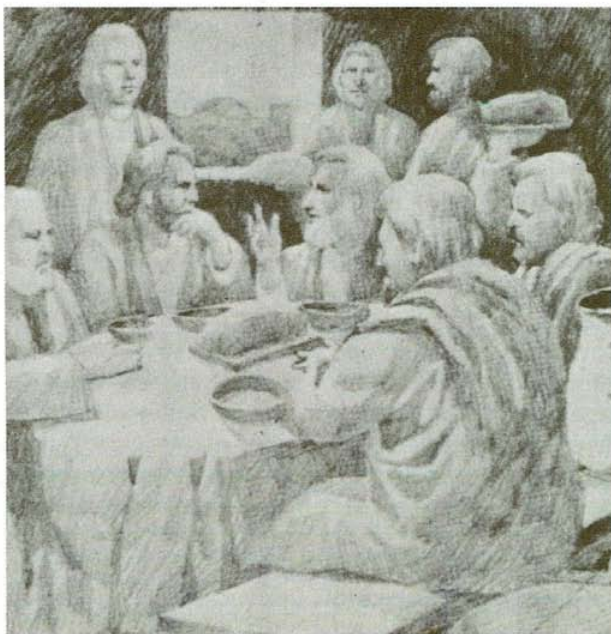
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죄스런 행위를 회개하라고 했다. 누가는 그의 가르침이 매우 효과적이어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행 4 : 4)고 기록했다.

성도들의 “모든 것을 통용하는” 생활 방식

이 두 사건에 즈음하여 개종한 수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형제애에 의한 생활 방식에 대한 열의와 헌신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지를 보살피라는 복음의 가르침에 맞추어 자기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이웃 기독교인과 함께 나누려고 했다.

“그중에 꺾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새로운 형제애에 의한 생활 방식에 대한 열의와 헌신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개종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함께 나누려고 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행 4: 34—35)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행 2: 44—45)

이 두 기록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도 사이의 경제적인 협력에 관한 종교적인 계획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서반구에서 니파이인을 방문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과 똑같은 정신의 발로였다. 니파이인의 경제 협력 방식은 약 2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니사 1—27절 참조)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였으므로 십이사도들은 매일 식량을 구하여 나누어 주는 일에 시간을 모두 빼앗겼다. 십이사도들은 이 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이 “공케를 일삼”기 위하여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이 책임을 말도록 일꾼 사람을 부르자고 제안했다. (행 6: 1—6 참조) 일꾼 사람이 부름을 받아 사도들의 지시하에 이 책임을 맡게 했다.

누가는 이 책임을 지칭하는 직분이나 직책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수년 후에 배도한 기독교계에서 집사에게 이 직분을 맡겼을 때 성서 편집인과 해설가들은 성서의 각 장의 첫 부분과 여백에 그들을 “일꾼 집사”라고 설명했다.

누가의 기록에는 이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백성의 물질적인 빈곤을 돌보기 위하여 행한 일은 감독

의 책임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도들이 일꾼 지부로 나뉘어졌을 것이며 감독이 각 무리의 물질적인 복지에 대한 책임을 졌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 체제를 채택한 것은 위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과 신앙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결과적으로 곤란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오순절에 교회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은 집과 토지와 수많은 사업에 투자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의 토지와 집과 점포 등을 계속 소유하고 그곳에서 생기는 이익을 기독교 사회에 돌렸다면 아마 그들은 자기 재산을 그대로 보유했을 것이며 또 기독교회는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바친 이 성도들은 지속적인 소득원이 없어졌다. 교회가 숫적으로 성장하자 수많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가입함으로써 처음 두 무리의 많은 사람이 기부한 본래의 재산을 모두 소모한 것이 분명하다.

약 10년 내지 15년 후에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기독교인을 돕기 위한 헌금을 요청했다. (고전 16: 1—4 및 고후 9: 1—8 참조) 이 때쯤 되었을 때 그들은 사실상 그들의 재산을 모두 소모하고 의지할 만한 수입원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초대 교회의 안식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기독교의 안식일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경전에서는 고대 기독교인이 그들의 기록

한 날을 지킨 것에 대하여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초창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신앙 가운데서 성장했으며 열성적이고, 정통적인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른으로서 생활하는 동안에 공회당에서 안식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들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대한 준비로서 금일 저녁에 열리는 공회당 예배에 참석했을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시편을 낭송하고 기도하고 선지자의 기록과 모세의 율법을 읽었을 것이다.

종교적인 예배 이외에도 공회당과 랍비가 대표하는 학교와 교사가 있는 곳에서는 평일에도 어린이와 젊은이들은 유대인의 예배와 인간에 대한 봉사의 근원이 되는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과 탈무드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에는 이런 율법과 선지자와 저술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나타나 있으므로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사복음서에서는 그가 자주 경전의 해석자로서 또는 유대인의 믿음과 관습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에 공회당에 참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눅 4: 16-21 참조)

물론 그의 사도들도 그와 동행하여 방문하였으며 사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공회당에 참석한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누가는 선교사들이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벗어났을 때 그들이 안식일에 공회당에 참석했으며, 말씀할 기회를 갖게 되면 예

어떤 기간에
기독교회는
예배드리는 날을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에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로 옮겼다.

수님의 사랑과 부활에 관하여 유대인에게 말씀했다고 기록했다. (보기, 사도행전 13:5, 14; 14:1; 17:1-2 참조)

그러나 기독교인의 믿음이 유대 사상을 초월함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예배 방식을 초월했으나 결국은 공회당의 예배 방식과 양립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과 유대인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경배와 성구 해석 이외에도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예배에 새로운 다섯 가지 방식을 첨가했다. (1)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함 (2) 주님의 만찬을 기념함 (3) 여성과 어린이가 남자와 마찬가지로 예배에 참석함 (4) 청중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엡 5:19)를 부름 (5) 회원들이 예수님께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을 소리내어 간증함이 그것이다. (티 이 라이언, 회복에 대한 배도,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개인 학습 지도서, 1960년, 34페이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기간에 기독교회는 예배드리는 날을 유대인의 토요일 안식일로부터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로 옮겼다. 아마 그것은 사도의 지시하에 모든 곳에서 동시에 행해지지 않고 점차적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성도들이 대속과 부활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됨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날이 토요일보다 더 의미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그들은 특히 “이단자”로서 공회당에서 쫓겨 난 이후로 공공연하게 자기 자신을 유대 사상으로부터 구별하고 싶어하기도 했을 것이다. 또 다른 실질적인 면에서 가능성이 짙은 것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변경시킨 것이 주님의

로부터 직접 주어진 계명의 결과였으리라는 것이다.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쉬지는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게 그들의 안식일에는 쉬도록 허락해 주었다. (기독교인은 콘스탄틴 황제가 서기 321년에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는 이러한 특권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사람만이 이런 특권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왜 초기의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공식 예배와 연관을 맺었는가, 하는 설명이 될 것이다. 그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편의성 이외에도 양심의 외침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보다 자신이 더 훌륭한 유대인이며 따라서 로마가 유대인에게 허락한 특별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기독교 성도들의 성전 참석

안식일 예배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물려받은 유대인의 유산에서 발전한 것이 분명한 것처럼 성전에 대한 그들의 태도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인은 지도자거나 회원이거나 그리스도가 사망하시기 전에 한 것과 똑같이 오순절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 관습은 최소한 25년 이상 계속되었다는 경전상의 증거도 있다. 그 예로서 바울은 성전 구역에서 유대인 의식에 참여하는 도중에 체포되었다. (행 20:26-33 참조) 기독교도인 유대인이 계속해서 성전 구역에 간 한 가지 이유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예언과 경전을 가진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

이었다. 그들은 메시야가 왔으며 그들만이 그를 받아들였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박은 유대인은 예언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잃은 것이다. 성도들은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성약의 약속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성전의 성소와 주위의 광장은 당연한 그들의 예배 장소로 생각했다. 물론 정당하게 그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배척한 사람을 따르는 무리에게 성전을 내주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 전통적인 의식과 회생을 성전 관리들이 계속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였으며
빌립이 사마리아로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하는 동안 기독교인은 성전의 바깥쪽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기독교인이 성전의 지역을 계속해서 사용한 두번째 이유는 그곳이 약 4만 평이 넘는 편리한 집회 장소를 제공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곳은 공개 구역으로서 여러 신도와 국가에서 온 수많은 무리가 종교적인 예배를 위하여, 구경하러, 심지어는 사업상으로 모여 들었다. (마 21 : 12 참조)

우리는 이 성전은 레위 신권을 갖고 있었던 배도한 유대인들만이 사용해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성전은 아름답고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했으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한 무리를 수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

기 위하여 지은 것이었으므로 규모가 작았다. 소수의 레위인 대체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다른 지파와 사람들이나 여성들은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었다. 석조 신전에는 제사장을 위한 방과 산헤드린 모임을 위한 큰 홀과 전세계의 유대인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로마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관리를 위한 사무실이 붙어 있었다. 이러한 물건은 폭동이 있을 경우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문을 갖춘 벽 안에 있었다. 이 벽의 밖에는 소위 앞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는 이스라엘 남자를 위한 뜰이 있어 그곳에서 유대인 남자는 제사장이 성전 동쪽의 높은 옥외 제단에서 매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구역의 뒤에는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성은 이스라엘 남자만큼 성전 가까이로 올 수 없었다. 여인의 뜰 다음에는 성전의 광장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로 알려져 있는 가장 넓은 부분이 있었다. (이곳은 내부의 담장이 신전을 감싸고 있지만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가 일반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장소였다.)

헤롯은 이방인의 뜰의 바깥 담장을 장식하기 위하여 회람으로부터 대리석 기둥을 수입하여 그것을 성전 광장의 삼면에 두 줄로 세웠다. 네째 면에는 궁정이 있었는데 162개의 코린트식 기둥이 네 줄로 되어 있는 열주로서 이집트의 카낙에 있는 거대한 이교도의 신전과 흡사했다. 일부 관계 권위자들은 수많은 회람 및 로마 신전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해와 비와 이따금 오는 눈을 막기 위하여 레바논 삼목재로 지붕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몇몇 참조 성구는 이 궁정을 솔로몬 행자이라고 한다. (행 3:11, 5:12; 요 10:23 참조)

누가의 기록은 성도들이 공동 소유제를 수립한 다음에 매일 일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모임을 갖기 위하여 성전 본 건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이 뜰에 모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곳에서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및 식량을 배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가르쳤다. 솔로몬의 행자는 공공 모임과 토론이 벌어졌던 회람과 로마의 공개 토론회와 똑같은 목적을 수행했던 것 같다. 성전 관리들이 이단으로 생각하는 무리가 성전 부지의 이 큰 홀을 차지하여 구체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전체적으로는 유대 백성들을 비난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화를 낸 까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 교리가 사마리아인에게 퍼짐

처음에 많은 무리가 개종한 것은 비록 유대인 지역 사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교회의 우주를 망라하는 진리는 곧 다른 무리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한 민족으로서 맨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는 사마리아인인 것 같으며 그들의 기원은 기원 전 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가 앗수르로 끌려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그들 대신 이방인들이 들어서서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하여 대체로 그들의 부인의 종교를 받아들였으나 그것을 바알 숭배와 혼합시켰다. (왕하 17:24-33 참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그들을 배도한 이스라엘인으로 생각했다. 사마리아인은 구약전서와 수많은 유대 구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라 타락

한 종교를 갖고 있는 백성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마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실 동안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전파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 (마 10:5) 또한 예수님이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주셨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수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였으며 십이사도에게서 임무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다. (요 4:39-42 참조)

그의 성공에 관하여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로 가서 교회 회원을 확신하는 일을 도와 주었다. (행 8:5-8, 14-25) 정통파 인물이었던 빌립, 베드로, 요한이 서슴지 않고 사마리아인을 교회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처음으로 교회로 받아들여진 사람

복음은 끊임없이 퍼져 나가 유대인과 배도한 유대인 즉 사마리아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고넬료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교회 대관장에게 주신 계시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승인됨을 나타내고 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배치되어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했으며 가난한 유대인에게 관대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에서는 그가 유다 사상의 구도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동안에—아마 자

신이 유대인 개종자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한 천사가 나타나서 해안을 따라 약 56킬로미터 남쪽에 있는 읍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했다.

베드로는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비유적인 시현을 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과 동행하여 읍바로부터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여행했다. 고넬로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의 가족에게 약속된 메시지를 들려 달라고 간청했다. 성신의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독교 교인이 되는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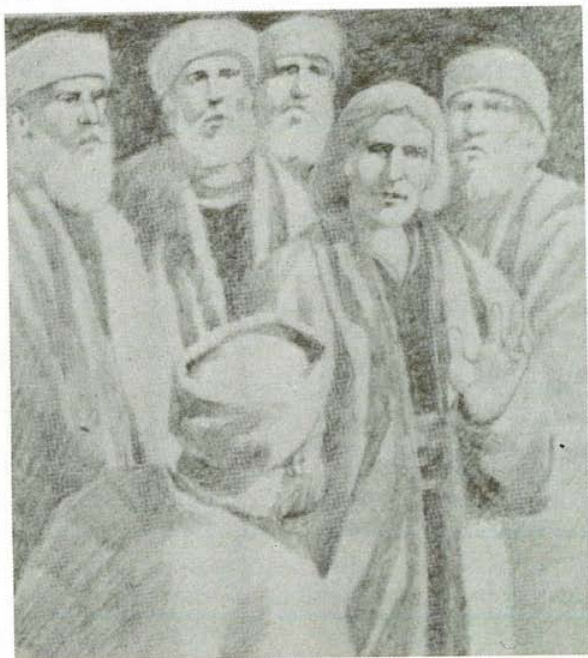
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행 10 : 44—48 참조)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시현과 이방인에게 성신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자 유대인 기독교도들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행 11 : 18) 이 사람들이 기독교회로 받아들여진 첫 이방인이었으며 이것으로 해서 정식으로 기독교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문을 열었으며 바울은 “이방인을 담당하는 사도”로서 이 사업을 인도하도록 지명받았다.

성장하는 조직

이십 세기의 교회 회원들은 성경 역사

누가의 기록에는 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일가견이 우리를 위하여 담겨 있으며...유대 종교가 전세계적인 교회로 진전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에 있는 모든 사건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대조해 보며 똑같이 비교해 보려 하면 안된다. 그 대신에 초기의 기독교 조직과 신권에 대한 해석을 1830년부터 1850년 사이의 교회가 발전하는 기간의 말일의 교회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조직된 정원회가 있기 전에 신권 역원이 활동한 일이다. 그 사람들은 십이사도 평의회가 생기기도 전에 후에 사도의 책임이 된 임무 지명을 받았다.

이것은 두번씩 예언자로 언급되고 있는 아가보라는 사람에 관한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행 11:28; 21:10 참조) 그는 칠십인이나 기타 교회에서 다른 역원이었을 수도 있다. 누가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나 사도와 그의 관계에 관하여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누가는 당시에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던 빌립에게 네 명의 딸이 있더니 “예언하는 자라”(행 21:9)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이 로마에서 체포되리라는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했지만 누가는 이 여성들의 예언이나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행 21:11 참조) 그들이 어떤 직책에 있었으며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 내용은 일부 사람들이 영적인 통찰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일 수도 있다.

누가의 기록에는 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일가견이 우리를 위하여 담겨 있으며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와 또한 유대 종교가 전세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간증을 지닌
인간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소속한 세상의
시기와 장소내에서
복음 원리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을 받았다.

적인 교회로 진전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간증을 지닌 인간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소속한 세상의 시기와 장소내에서 복음 원리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명을 받았다. *

“이 아기를 꼭 구해야 해. 이 아기를 구해야 해.” 나는 힘이 빠지고 부들부들 떨렸으나 드디어 강 저편 기슭에 다달았으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 나는 남편과 함께 스위스로 여행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칩레를 받았으며 결혼 인봉을 위하여 스위스 신전으로 갔습니다. 신전에 있는 동안 신전 의식 집행자 한 사람에게 자녀에 대한 강한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금식하고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족이었으나 우리가 늘 생각하고 염려했던 중요한 것에 대하여 기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해 여름과 그 이후로 가을까지 나는 우리가 여러 번 권고받은 것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런 단계를 밟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거나 그 대답이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닐까 봐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침내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후에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출근했으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보통 때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팍 찼습니다. 나는 마치 걸지 않고 뚱뚱 떠다니는 것같이 느꼈습니다. 나는 그 특별한 날에 본 것처럼 활기찬 색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했으며 내가 보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런 성구를 이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금식이 온

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교성 59 : 13)

그때까지 주님이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렸으나 기쁨에 가득 찬 내 가슴은 주님에게 “주님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을 전해 드렸습니다.

그 훌륭한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금식을 끝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급히 전화를 받자 어떤 여성이 자기는 이웃 마을에 사는 말일성도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자매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사회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 자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화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의자에 앉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의자가 없었으므로 그냥 계속해서 말하라고 했으나 곧 의자에 앉아서 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다음과 같이 말하자 내 몸에는 기운이 빠지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 아이를 가족으로 맞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적당한 가정을 찾다가 자매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집시 소년입니다.”

놀랍게도 내 자신이 차분한 음성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남편과 상의해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약 한 시간이나 토론한 후에 전화를 해서 간절히 바란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아기를 보호하

고 있는 영아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대기실에서 우리의 왕자님이 도착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아원 원장이 아기를 데리러 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어 버린 것 같았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기대감으로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먼 곳으로부터 마치 작은 썰매 종소리같이 부드럽게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 소리는 커졌으며 나는 그 소리는 아기가 손에 쥐고 있는 방울에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썰매의 방울 소리는 하늘에서 오는 음악 소리같이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내 생활에 새로 들어오는 이 아기를 보았을 때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곱슬머리에 감싸인 크고 진지하게 보이는 눈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기의 얼굴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천년의 지혜를 담고 있는 검고 진지하고 탐구하는 눈 같았습니다.

원장이 나에게 아기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줄 주저하는 첫번째의 접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 아기는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가야. 내 아들이야. 내 머리 속엔 이런 이상하고도 즐거운 말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에게 그 아기를 안겨 주자, 그 아기는 울려다보면서 탐색하듯 손가락을 뻗쳐 남편의 턱을 만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의 입술과 눈에 미소의 흔적이 나타나서 남편의 얼굴에 반영되고 내 마음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영원히 간직하며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한 가지는 끝나고 한 가지

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약하나마 첫 결속의 유대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처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조용한 방에서 만나기 오래 전에 존재했던 관계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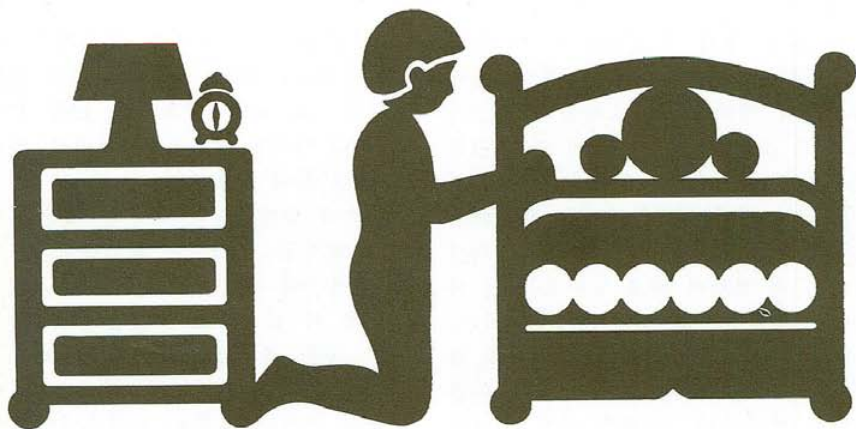
처음 만난 후로 우리는 아기가 도착할 것에 대비하여 집을 정리하는 데 3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이미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인 12월 17일에 우리 아기가 성탄절을 지내기 위하여 우리 집에 왔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회상이 깨지고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던 탓으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릴 곳을 지나쳤나? 나는 유리창을 통해서 캄캄한 밤거리를 내다보았으며 낮은 건물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이 내가 내릴 곳이었습다.

눈을 밟으며 집으로 가면서 내 마음은 따뜻한 감사의 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소망을 성취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일생 동안 노력하는 가운데 그가 계속해서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다정한 팔이 나와 나의 가족을 우리의 하늘 집에 계시는 그의 면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이스코넨 형제와 자매는 헬싱키 핀란드 스테이크의 타애피어와드 회원이다. 그들은 그 아기의 법률상의 부모가 시이스코넨 부부에게 그 아기를 입양하도록 동의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그 아기의 위탁 부모 역할을 했다.) *

“너는 돌이킨 후에”

재니트 브리감



그 자매는 개종한 지 3년 된. 최근에 선교사를 마친 귀환 선교사이다. 그 자매는 자신의 개종한 이야기를 들려 주어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때처럼 행복할 때가 없었다. 선교부장 부인의 요청으로 쓴 깨끗하게 타자된 그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좀 부러운 생각도 들었다. 물문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에 대한 영적인 확신을 구하는 동안에 그녀의 간증이 엄청나게 발전했던 것이다. 그녀는 찬사를 보지는 않았으나 작은 기적은 여러 번 보았다. 주님이 그녀의 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 자매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나는 교회에서 자라났으며 개종자들의 열성에 감탄하고 있다.

나는 이런 경험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답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 시를 읽어 보라는 나의 제안을 아주 기술적으로 거절했다. (“시는 전혀 읽지 않았어요.”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자매님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쓰지 그러세요?”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개종자가 아닌걸요.”
“그건 말이 안돼요. 자매님은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내가 평생 동안 모임에 참석하고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친 것으로 개종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가망성이 없

는 일인 것 같았다. 내가 개종한 방식은 분명하지 않았으나 자로는 분명히 언젠가나 이용할 수 있었다. 나는 수년 동안 일기와 개인 일지를 작성해 왔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개종 이야기가 있을까? 내 일지를 살펴보니 나는 평생 동안 언제나 교회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조상은 복음이 회복되던 초기에 영국과 뉴잉글랜드에서 침례 받고 대평원을 건너 유타주로 갔다. 내 기억으로는 나는 언제나 물몬이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내 기억으로는 나는 언제나 물몬이었다.” 나는 교회에서 성장한 이야기며, 팝콘 파티와 초등학교에 참석했던 이야기며, 독창을 한 이야기며, 학교 친구에게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해 준 것을 썼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만 8세였는데 그 일이 생긴 것을 마음속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없었다고 썼다. 모든 친척과 마을 사람의 절반 정도가 아이다호주의 렉스버그에 있는 제 4와드 예배당에서 가진 장례식에 참석했던 것도 적었다.

이렇게 회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주제가 떠올랐다. 그것은 나는 어릴 때부터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복음을 배웠다는 것이다. 가족과 교사들이 주님에게 힘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다. 사춘기 동안에는 내 기도가 합당하고 유효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상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극적인 응답과 오랫동안 주님께 간구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반대로 나의 기도는 간단하고 짧았으며 때로는 순전히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그리고 요령이

있었다. 그러나 일지를 살펴보고 기억을 더듬는 가운데 내가 항상 기도했으며 그 기도는 항상 진지했다는 것을 알았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도했다. 말을 타다가 말이 걸잡을 수 없이 날릴 때도 기도했고, 아무도 나와 춤추려 하지 않을까봐 두려울 때도 기도했다. 청중 앞에서 피아노 연주할 때 너무 무서워지면 기도했다.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응답되었다.

주님에게 힘을 간구하는 것이 나의 생활 방식이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힘을 깨달았으며 이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던 정도로 내 생활에 주님의 손길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고등 학교에 다닐 때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수많은 친구들이 어째서 내 생활이 그들의 생활과 다른지 알고 싶어하던 일이 생각났다.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을까? 왜 물몬 청소년은 그렇게 친했을까? 새벽 6시 반에 갖는 종교반은 무엇이었나? 나는 몇몇 친구에게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여자 친구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은 학교 교향악단 순회 공연이 끝나고 우리가 그 가족의 식탁에 둘러앉은 어느 날 밤 내가 수줍은 목소리로 “물몬 교회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한 몇 주 후에 침례받았다. 또한 친구는 15세가 될 때까지 물몬경에 대한 간증은 얻었으나 침례받을 신앙은 갖지 못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나와 함께 청년 모임과 무도회에 참석했다. 내가 고등 학교 신문 편집인 대회에서 만난 한

젊은 남성은 3년 동안 편지를 교환한 후에 교회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개종 시키는 못했지만 그에게 진리를 소개했으며 그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일지에서 이런 사실을 회상하고 개종 이야기를 쓰기 이전에는 내가 효과적인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까 하는 것을 의심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말은 수년 동안 내 귀에 피스럽게 울렸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의 방식으로 나의 친구들에게 선교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것을 알고 나니까 기쁘게 또한 터놓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을 적었다. 내가 특히 존경했던 한 감독님과 자기 자신을 “모든 자의 종”(교성 50:26)으로 생각했던 박식하고 합당한 사람들의 축복을 적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력의 영향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귀감이 될 때까지 경전을 공부하겠다는 동기가 처음에 그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 내 생애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적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 한 분이 그날 아침 예배에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도록 기도했다. 그 기도는 불과 한 시간 후에 분명히 응답되었다. 나는 그 사건도 한동안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사건을 통틀어서 나는 주님이 나의 생활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성공적으로 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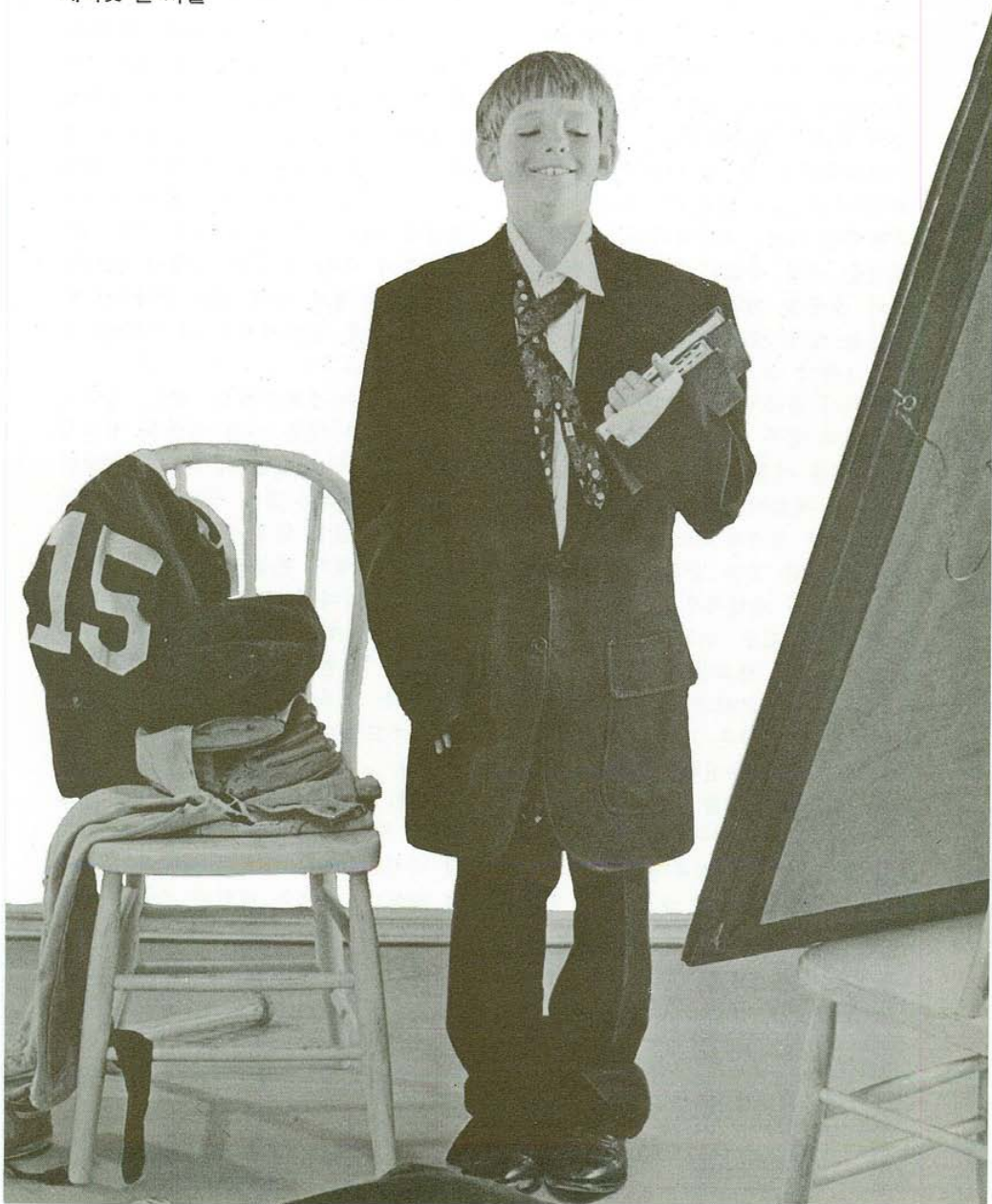
종교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 평가했던 것이다. 8페이지에 달하는 나의 개종 이야기를 모두 완성했을 때 좀더 자신을 잘 인식하게 되었다. 일지를 읽고 내 이야기를 씀으로써 자신을 좀더 잘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성장 과정을 좀더 분명히 알았으며 내가 모든 복음 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도 주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와 교회의 수없이 많은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 어린이로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회의의 시기를 잘 이겨 나가게 해준 기도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내가 가장 곤궁에 처할 때 회상한 것은 어린 아이로서 바친 기도였다.

나의 교회 역사를 기록할 때부터 나는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 누가는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기록했다. 나는 내 이야기 한 부를 맨 처음에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친구에게 주었다.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좋았어요. 자신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지요?”) 그때부터 나는 신중하게 몇몇 다른 친구에게 그것을 주었으며 우리는 서로 경험담을 나누고 격려했다.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싶어하는 비회원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안에는 너무 사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내가 그것을 나누어 준 친구들은 강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나도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개종 이야기를 쓰고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며 나는 더 강화되었다. 나는 개종자다. ※

부름받기 전에

복음 선교사로 준비하는 방법에 관한 여러 선교부장의 권고
데이빗 알 미켈



새로운 장로들과 자매들이 도착하면 선교 본부는 새로운 기분에 들뜬다. 갓 도착한 선교사들은 열성적이며 선교부 직원들은 그들이 전도 사업의 분위기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일에 열성이다. 선교부장은 정말로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을 섬기면서 완전한 보상이 따르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어한다.

선교부장은 새 장로와 자매와 접견하면서 곧 그들 가운데는 흥분한 사람, 걱정하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부름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성장하고 배움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선교사가 된다.

그러나 일부 선교사는 예외적으로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같이 보인다. 만일 선교부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한 사람에 관하여 관찰한 것을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면 어떻게 말할까?

전세계에 있는 선교부의 5명의 선교부장 및 전직 선교부장과 접견한 결과 가장 기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한 수많은 선교사들은 교회 본부로부터 통지서가 그들의 우편함에 배달되기 훨씬 전에 봉사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뉴욕시티 선교부의 로널드 알 라이트 선교부장, 우루구아이 몬테비데오 선교부의 매리온 시 로빈슨 선교부장, 영국 선교부의 벤 이 루이스 선교부장,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교부의 린드세이 알 커티스 선교부장, 프랑스 파리 선교부의 알 딘 로빈슨 선교부장과 접견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제언을 요약한 것이다.

복음 선교사로 나가려고 계획하는 사람이 키워야 할 특정한 개인적인 성품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루이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열의를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이고 행복한 태도를 키워야 하며 사람의 실수나 결점보다는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규칙에 반대하려 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구세주에 대한 확고한 간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경전 안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자신을 준비시키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딘 로빈슨 선교부장도 같은 의견이었다. “내가 겪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면 주님이 그들의 노력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하늘의 권능’(교성 121:36)을 불러 내립니다.” 또한 훌륭한 선교사는 동반자와 사이 좋게 지내고 분쟁을 피할 줄 알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기를 좋아하고 하루 동안에 자주 기도한다.”고 로빈슨 선교부장이 말했다.

또한 루이스 선교부장은 선교 사업을 잘 수행하는 장로와 자매들은 가정에 대한 향수를 극복한 것같이 보인다고 말했다. 때로는 대학에 조금 다니는 것이 다른 문화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폭넓은 바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봉사할 자질을 갖춘 사람이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학을 선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선교부장이 합당성이 될 수 요건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루이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의로운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말씨나 개인적인 습관에 부끄러움이 없이 멋뻐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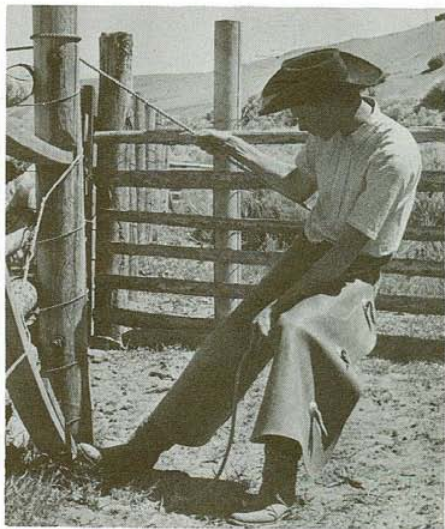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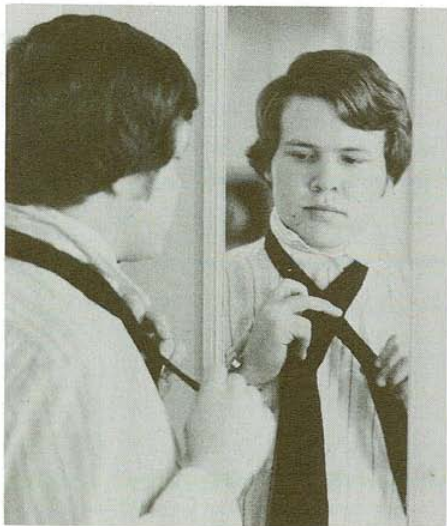
선교사로 봉사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던 로빈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본적인 다섯 가지 분야에는 순종과 희생과 열심히 일하는 것과 기도와 신앙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선교사는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는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커티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경험을 갖고 성령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젊은이는 사실상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 간증이 없다고 믿고 있으나 이것은 성장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필요한 사소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리온 로빈슨 선교부장은 선교사는 경전에 대한 지식과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루이스 선교부장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물론경을 읽고 그 참됨을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과 유창하게 읽고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성신이 무엇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하며 영적인 증거를 받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간증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지금, 가능하면 언제나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래 선교사가 될 사람에



게 “지금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배우라”고 권고했다.

커티스 선교부장은 예비 선교사에게 육체적, 정서적 준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나치게 체중이 나가는 사람은 선교 지역에 가기 전에 정상 체중으로 내려야 합니다. 예비 선교사는 모두 태도와 개인적인 용모와 몸치장과 복장을 다듬어야 합니다. 정서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든지 가정을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트 선교부장은 “개인적인 의로움과 훈련의 중요성과 자기 자신과 타인 특히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커티스 선교부장은 “드문 경우이기 는 하지만 선교사가 범법 사실을 감독에게 완전히 고백하여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은 죄의 짐을 지고 선교 지역에 옵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런 부담이 있으면 성령을 따르고 간증을 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게 되므로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

재정은 어떻게?

커티스 선교부장은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그와 함께 앉아서 예산을 짜고 재정 문제 처리 방법을 분명히 이해시키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매달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며 선교사에게 그 돈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선교사파에서 선교사에게 가는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다.

루이스 선교부장은 다섯 명의 선교



부장이 제시한 내용을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일을 시작하고 저축을 해서 선교 사업을 위한 은행 계정을 설정하여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안 최대한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교 사업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와 부모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가? 부모와 친구는 선교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를 어떤 방법으로 가장 잘 격려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기 자녀에 대한 신뢰를 키우고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하여 개인적인 습관과 또한 의롭게 생활함으로써 얻게 되는 큰 축복에 관하여 조언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가 부모로부터 그러한 조언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부모가 그 일을 신권 지도자가 대신 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라이트 선교부장이 말했다.

딘 로빈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부모가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계속해서 선교사로 나간 자녀를 가르치고 격려하며 순종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커티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동반자와 지도자를 지지하도록 권고하십시오. 회원들과 더 가까이 지내도록 권고하십시오. 만일 동반자와 문제가 있다는 편지를 받으면 그의 말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하고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십시오.”

루이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제안했다. “부모는 진실로 자녀를 집으로 데려오고 싶지 않을 때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집을 생각나게 하는 내용’ 대신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선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선교사에게 그들의 부름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자주 ‘장로’ 및 ‘자매’라는 칭호를 사용하십시오. 나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편지를 안하겠지만 계속해서 매주 편지하십시오.” 매리온 로빈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정에서 사랑과 조화를 유지하며 그것을 선교사에게 전해 주십시오. 선교사가 집안 일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어려운 일을 모두 상세하게 적어서는 안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오는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은 없습니다.”

커티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권했다. “그 선교사에게, 선교사 프로그램에,

그의 구도자에게, 그가 일하는 지역에 관련하여 생기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만큼 집안 일에 관하여 많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낚시, 사냥, 기타 그가 향수병을 갖게 할 가족의 계획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소식과 집회에서 들은 메시지와 좀더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등을 적어 보내십시오. 특별히 긴급한 상황에서 선교부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화를 하거나 선교 사업을 하는 아들과 딸을 방문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싶으며 일반적으로 선교사가 해임될 때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집으로 곧장 오게 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춘 다음 선교사는 자신이 봉사할 지역에 도착한 후에 성공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딘 로빈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규칙에 순종하십시오.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말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에 빠지려는 유혹을 억제하십시오.”

루이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만일 선교사가 집이나 애인을 너무 그리워하면 좀더 낙담하기 쉽습니다. 비판이나 결점 찾기도 낙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기꺼이 희생하려 해야 합니다.”

라이트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는 매일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가 없도록 일을 행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따를 수 있는

좀 단순한 지침이었으며 그는 정말로 뛰어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에게 어떤 충고를 주고 싶은가?

“집에 있는 친구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협조적이면서 자기 남자 친구가 그의 일에 마음을 쏟을 것을 권고하는 여자 친구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편지하거나 너무 애정에 넘치는 편지를 쓰는 사람은 선교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자 친구가 선교사에게 자기가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가 선교 사업을 나간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이야기하고 또한 그의 구도자와 침례와 동반자와 선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라고 커티스 선교부장이 말했다.

메리는 로빈슨 선교부장은 때로는 선교사가 “완전히 이 사업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일에 몰두하는 시험에 합격”할 필요가 있으며 그가 계속해서 집에 남아 있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으면 그렇게 헌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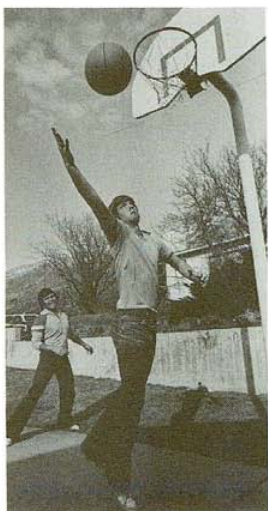
라이트 선교부장은 선교부에 새로 도착한 사람에게 김블 대관장님의 말씀인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잠그십시오.”를 읽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가 자기 마음을 선교 지역에 돌이키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이것은 선교 지역에 대한 정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집에 있는 어떤 사람

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쏟으면서 동시에 선교 지역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부장들은 집에서 누군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없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배운 선교사가 좀더 일을 잘 수행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매주 자기 가족에게 또한 때때로 친구에게 편지를 쓰며 선교 사업이 끝난 후에 데이트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백일몽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며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 있는 곳을 알리기 위해 그곳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을 사는 데 돈을 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한다.

언젠가는 선교사로 나가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진 젊은 여성에게 주고 싶은 충고는?

라이트 선교부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자신의 생활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고



복음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간증을 얻으십시오. 복음을 이해하고 성신이 자기 생활에 임할 수 있다는 강한 영향력을 받고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될 것이며 일정한 기간을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바칠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인도와 확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루이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께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으므로 선교 사업을 할 준비를 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오지 않거나 그 대신에 결혼할 기회가 오고 신전에서 결혼할 기회가 온다면 그것을 자신의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해야 하며 전도 사업을 할 임무는 나중에 남편과 함께 봉사할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상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며 선교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은 모두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생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신전에서 결혼하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어느 편이라도 합당하게 될 수 있게 영적인 마음을 갖추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고합니다.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며 자신의 덕성을 해칠 어떤 행위에도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선교사로 나갈 생각을 하는 자매나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나갈 것을 고려하지 않도록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선교 사업은 힘든 일이며 쉽지 않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

다. 경전을 연구하고 구세주에 대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또한 현재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있게 주님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 외에 교회의 젊은이에게 주고 싶은 선교 사업 준비를 갖추는 것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과 제언은?

메리온 로빈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내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지 다하고 싶습니다. 감독과 가까이 생활하고 예언자의 권고를 따르며 계명을 지키고 부름이 올 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준비를 갖추 수 있게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도록 권고합니다. 선교사 프로그램은 오늘날 지상에서 젊은이들을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특히 교회와 결혼 생활에서 지도력을 연마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함으로써 얻는 여러 축복에 덧붙여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축복입니다.”

커티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첫째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분명히 하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로 선교 사업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교 사업은 기쁨도 많지만 슬픔과 실망도 많으며 이와 같은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뒤섞여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태도이며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는 열의와 일에 대한 헌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매

우 중요한 것은 모든 규칙에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규칙을 지키는 선교사는 성령을 받게 되며 대체적으로 성공적인 선교사입니다.”

루이스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계명을 지키고 교회에 참석하며 매년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참여하며 기도하고 경전 특히 물문경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과 가까이 생활하면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자신이 봉사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상황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합당하게 생활하며 특히 순결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 일지를 쓰며 그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 자신있게 말하기 위해 웅변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짧은 말이라도 매일 또는 매주 한 가지씩 말씀을 준비하면 그것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우

게 됩니다. 성장했을 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어떤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도록 선교사에게 편지쓰도록 권고합니다.

“영양에 관해서, 먹어야 할 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의 종류에 관해서도 좀 배워야 합니다. 최소한 약간의 기본적인 식품을 요리하는 것과 바느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정기적으로 운동하며 적절한 양의 수면을 취하고 육체적으로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하여 그 운동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권고합니다.”

라이트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젊은 십대에게 말할 때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가 없도록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고 싶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던 로빈슨 선교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 회원이 된 것과 복음의 모든 축복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알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상에서만 백성 가운데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신임에 충성을 다할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며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생활 질서를 세울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왕같이 고귀한 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이 책임을 느끼고 이 과제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오늘날의 젊은 십대에게 말할 때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가 없도록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고 싶습니다.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봄 간더”란 이름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 출석부에 올라 있었으나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그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면 이 봄 간더는 누구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로렌조 와드에 참석하는 신학 연구원 중등부 학생들이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신학 연구원 중등부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은 장난삼아 출석부에 봄 간더의 이름을 써넣었다. 이 장난이 바로 “봄 간더 이야기”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일찍 16세 된 소년인 닐 자레키는 학교로 가고 있었다. 닐에게는 이것이 평상시와 다름없

는 등교길이었으나 이날은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을 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닐은 이 특별한 날 그가 알고 있는 킴 스파이어라는 말일성도 소녀를 만나러 아침 일찍 학교로 가고 있었다.

닐은 학교에 도착해서 킴이 여러 명의 말일성도 소녀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왜 그들이 늘 그렇게 아침 일찍 학교에 오느냐고 묻자 그들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갑자기 그들 가운데서 “닐을 봄 간더로 만들면 어떻겠니.”라는 음성이 들렸다.

닐은 거기에 가만히 서



봄 간더 이야기

폴 디 캔션

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뭐라고?” 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녀들이 널에게 봄 간더의 역할을 하면 좋겠으며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등록되어 있는 가공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널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몇 마디 질문한 다음 마침내 이 장난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널은 자기가 하겠다고 동의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자기가 어떤 일에 끌려 들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날 오후에 널은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속해 있는 킴과 마알린으로부터 진화를 받고 그가 읽을 교회 서적 몇 권을 가져다 주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좋다고 말했으므로 오후 5시 30분에 킴과 마알린은 널의 집을 방문하여 대여섯 권의 소책자와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와 교회 정사한 권을 주었다. 널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밤에 숙제를 해야 하는데.”

그날 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숙제를 끝냈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마음에 스쳐 지나갔다. “내일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가면 교사가 의심할 테니까 신분을 확인할 증거가 필요할거야.” 널은 급히 공공 도서관으로 가서 도서관 출입증을 구입하여 그 위에 “로버트 널 간더”라고 정식으로 적어 넣었다. 그날 저녁 남은 시간에 널은 물몬 서적을 가능한 한 많이 공부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대하게 되었으므로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화요일 아침 일찍 킴이 널을 신학 연

구원 중등부로 데려가기 위하여 차를 몰고 왔다. 교실에서 널을 아는 학생이 많았으므로 킴은 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널이 봄 간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침내 신학 연구원 중등부 교사인 마이크 대니얼슨 형제에게 널을 소개했다. 그러나 대니얼슨 형제는 그가 봄 간더라고 믿지 않았다. 도서관 카드를 보여 주자 웃기까지 했다.

이제 널에 대한 농담이 끝났으므로 그는 그 시간에 졸곧 앉아 있기만 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다니엘로부터 시작한 그날의 공과는 정말로 널의 흥미를 자극했다. 그 공과는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이야기로 끝났다. 대니얼슨 형제는 다음날 수업 시간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널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다음날 한 번 더 오기로 결심했다.

널은 자기가 말한 대로 수요일 아침 일찍 신학 연구원 중등부에 나왔으며 그때부터 매일 아침 참석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널은 선교사가 그의 집을 방문하여 교회에 관하여 가르쳐도 좋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가 승낙하였으므로 금요일에 두 장로가 그에게 첫 토론을 가르쳤다. 널은 약 2주일 후에 침례받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았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 학생들의 단순한 농담으로 시작한 것이 한 젊은이가 구세주의 참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 끝났다. 가공의 인물인 “봄 간더”가 훌륭한 선교사로 발전했다. *



그가 도와 주실 준비를 하고 곁에 계심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어떤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 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기꺼이 도와 주려 하신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가 앞을 내다보시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아시며 그의 지혜에 따라 도와 주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위로가 되는 권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곁에 있을 동안에 나를 부르라……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

카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88 : 62-63)

내가 중앙 아메리카에서 한 선교부를 관리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훌륭한 경험을 한 장로가 왔는데 그 일은 주님이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기꺼이 우리를 도와 주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장로는 일반적인 만 19세의 선교사보다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로 개종한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그후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 부름을 받고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그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간증을 갖고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 어디에 있지? 이제 선교 사업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가까이 계시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심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을 하기 위하여 돈을 쓰려고 하면 요셉 스미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였는지 알아야 해.”

그날 밤 그는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경험을 얻지 못하고 실망하여 그 다음날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총관리 역원이 그들에게 말씀하게 되어 있었던 날입니다. 그는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305명의 다른 선교사들의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앤 엘든 태너 부대관장님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 장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이분은 잘 차려 입은 사업가와 비슷하게 보이고 예언자같이 보이지는 않아.”

태너 부대관장님이 말씀을 시작할 때 아직도 실망에 빠져 있던 이 장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점점 더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태너 부대관장님이 “만 24세가 된 선교사는 모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연령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 장로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으며 그는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태너 부대관장님에게 가까이 가면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예언자의 신성한 부름에 대하여 간구했던 그 간증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태너 부대관장님은 예언자 요셉의 부름의 신성한 본질에 관하여 간증해 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참으로 예언자였다는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가까이 계시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의심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록하신 율법에 순응하는 모든 교회 회원이 하나님의 영향력의 실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비회원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과 율로 신전에서 있었던 다음과 같은 경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헌납 준비를 위해 문을 닫기 전까지 1978년 9월 한 달 동안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특별한 신전의 영향력을 느낀 수많은 방문자 가운데는 어떤 비회원 신문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경하다가 해의 왕국의 방의 문에 다달았습니다. 그와 함께 가던 몇몇 사람이 갑자기 그가 서서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면서 동시에 눈을 떴는데 마치 “거기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또는 “누가 거기에 계십니까?”라고 질문하는 것 같은 몸짓이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을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거기에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있음을 안다는 것을 나타냈으며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 비오듯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신전에서 자주 발견되는 훌륭한 성령의 감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거기에 무엇인가 훌륭한 것이 있음을 알았으며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실재하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특히 젊은이 여러분, 결정해야 할 것과 수립해야 할 목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신앙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일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가장 가치있는 일인 선교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주님의 방법인 신전 결혼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항상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까이 계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그런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그의 조언에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최대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그가 우리 개개인을 돌보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담 :

“우리 집에는 라디오라고 하는 훌륭한 기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송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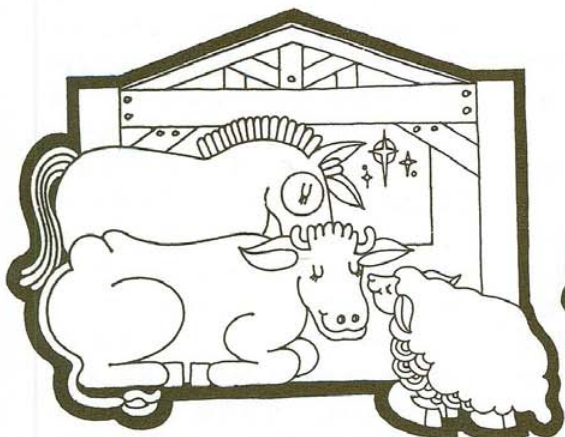
의 주파수를 잘 맞추면 대륙을 가로질러 때로는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연사의 말씀이나 가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그들을 안방까지 데리고 와 마치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사용한 다음 그 내부에서 라디오 진공관이라고 하는 섬세한 부속이나 전자 장치 가운데 낡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라디오는 그 자리에 그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지만 그 내부에는 어떤 일이 생겨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가수의 노래도 들을 수 없고, 어떤 연사의 말씀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자……여러분과 나는 영혼 안에 그런 진공관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식에 가라’는 진공관, ‘지혜의 말씀을 지키라’는 진공관, ‘십일조를 지키라’는 진공관, ‘가족 기도를 하라’는 진공관, ‘경전을 읽으라’는 진공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진공관과 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사용하지 않거나 활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중 하나가 기능을 멈추면—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마치 우리 집의 라디오 진공관이 고장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먼 곳의 소식을 들을 수 있지만 진공관이 고장나면 수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자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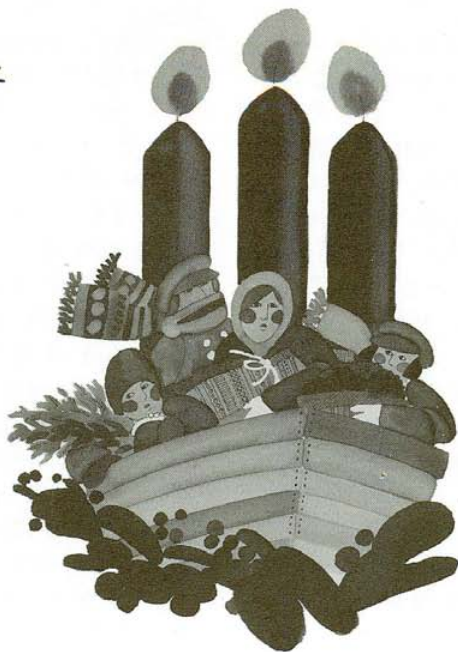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다면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해롤드 비 리, “라디오 진공관”, 뉴 이라, 1973년 3월호, 10—11페이지) *

아기 예수의 탄생

(“함께 나누는 시간” 활동)



주: 이곳의 그림은 가정의 밤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하여 간단한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색칠할 수도 있다. 또한 더 작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색칠하거나 오려 내어 함께 나누는 시간 활동을 위해 예수 탄생 장면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일라의 양초

마조리 알 세퍼

세 포는 들떠서 조그만 부두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오래된 농가에서 비치는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 가자, 가로등 불이 좁은 길을 따라 보트가 놓여진 곳까지 가물 가물 길을 비춰 주었다. 12월의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으로 아직 어두컴컴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일라 그리고 세포는 배에 올라타고 출발했다. 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헬싱키에 있는 항구 근처의 시장터로 가는 길이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실은 짐이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는 칙칙거리는 모터 소리보다 더 크게 말씀하셨다. “감자, 자작나무 잎 다발, 그리고 어제 일라와 세포가 따온 덩굴 월굴이란다.”

“또 엄마가 짜서 만든 물건들도 많이 있단다.” 아버지가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서 헬싱키를 향해 어두운 물 위로 큰 발동기신을 물면서 말씀하셨다. “양탄자와 식탁보를 하나씩 더 실었다면 일라와 세포가 탈 자리가 없었을 텐데.”

“저, 그러나 우리는 오늘 꼭 가야만 해요.” 세포가 주장했다. “오늘은 바로 제가 새로운 스키를 사기로 한 날이거든요.”

매년 겨울이 되어 필란드만이 얼어붙으면, 세포는 얼음 위로 스키를 타고 육지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 매년 2월이 되면 그는 스키의 날 경주에 참여했었다. 그러나 그의 스키가 부러져서 세

포는 헬싱키에서 새로운 스키를 살 돈을 벌기 위해 이웃 농장에서 여름과 가을 내내 일해 왔다. 그는 올해 꼭 경주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독립 기념일을 위해 특별한 초를 사기로 한 날이에요.” 일라가 말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도와 팔 자작나무 잎들을 모으면서 빈 돈을 모두 모아 두었다. 12월 6일은 핀란드 독립 기념일이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창문마다 쫓불을 밝혀 놓는다. 일라는 스톡홀름 백화점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초를 살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큰 배와 여객선들이 머무는 부두를 지나 남쪽 항구로 향해 항구 끝 부근에 있는 빈 터로 배를 몰았다. 아버지가 뛰어내려서 배를 단단히 매 놓으려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벌써 시장터에 노점을 차리고 오렌지가 햇빛을 받지 않도록, 차광막을 치고 있었다. 크고 흰 대성당의 둥근 지붕이 이른 아침 안개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다.

“세포야, 이 양탄자 뭉치를 노점으로 옮겨 주겠니?” 어머니가 물으셨다. “상점들이 문을 열기 전까지 나를 도와 노점을 차릴 시간이 있을 거다.”

세포는 부피가 큰 꾸러미를 움켜 쥐고 일라가 배에서 내려 항구 끝에 있는 돌을 짚고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배가 흔들 흔들 움직이고 있었다. 일라는 한 손에 지갑을 쥔 채 천천히 걸었다.

“일라야, 빨리 해. 이 양탄자가 무겁단 말야!” 세포가 화난 어조로 말했다.

일라는 머리를 돌려 대답하려다가 균

형을 잃었다. 그녀는 균형을 잡기 위해 배의 끝부분을 움켜잡는 순간 지갑이 손에서 빠져 나가 물에 빠졌다.

“내 돈!” 하며 일라가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배에 있는 노를 재빨리 잡아 지갑을 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 속에 집어 넣어 보았다.

“안 되었지만 찾을 수가 없구나.” 하며 그는 부드럽게 일라가 배 밖으로 나오도록 도와 주었으며 세포는 양탄자 뭉치를 가지고 따라 갔다. 세포, 일라,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덩굴 월굴과 자작나무 잎들 그리고 감자를 실은 배 위에 남아 있었던 동안 노점까지 말없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어머니는 양탄자 조각, 식탁보, 그리고 돛자리 등을 재빨리 정리해 놓았다. 그녀는 작은 동전을 집어 낼 수 있도록 손가락 끝이 나오게 만든 특별한 장갑



을 끼고 있었다. 어머니의 노점 옆에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바구니를 팔고 있는 살로넨 아줌마도 역시 쌀쌀한 아침에 장갑을 끼고 있었다.

세포는 어머니와 살로넨 아줌마에게 근처 가게에서 가져 온 뜨거운 포수(뺨을 안에 넣어 튀겨 낸 빵)를 갔다 드린 다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저는 지금 가서 새 스키를 사야겠어요. 일라야, 같이 가지 않을까?”

일라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갈 수 없어. 살로넨 아줌마를 도와 드리면 1마르크를 나에게 줄거야.” 그녀는 한숨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나는 작은 초를 살 수 있고 내년까지 기다리면 특별한 초도 살 수 있겠지. 1년은 그렇게 긴 것이 아니야.”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세포는 그녀가 잔신히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몸을 돌려 시장 밖으로 빨리 걸어 나갔다. 그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모피 모자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반면에 그에게는 일라가 한 푼 두 푼 모아 온 돈을 잃어버렸을 때 몹시 안타까와 하는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언짢은 생각이 떠올라 세포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일라에게 배에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지만 않았다면……”

가게에 있는 점원이 그를 맞아 주었다. “야, 너는 운이 좋구나. 네가 가을 내내 갖고 싶어하던 스키가 아직 여기 있단다.”

세포는 스키를 만져 보고 한참 동안 그것들을 쳐다보았다. 열은 청색으로 에나멜을 입힌 표면이 전기불에 반짝이

고 있었다. 그는 핀란드에 있는 가장 훌륭한 스키 선수들이 경주에서 이겼을 때 이것과 꼭 같은 스키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갑을 꺼내기 위해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었을 때, 세포는 “일년은 그렇게 길지 않아.”라고 일라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잠깐만 기다려요.” 점원이 선반에서 선수권 보유자들이 타는 스키를 꺼내려 할 때 세포가 말했다. “제 생각엔……, 제 생각엔요.” 그는 전에 부러진 것과 같은 좀더 싼 나무 스키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는 저것 말고 이것을 사겠어요.”

세포는 시장으로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내가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떤 종류의 스키를 가질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스키에 왁스칠을 잘 하고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

세포는 아버지의 배에 새 스키를 조심스럽게 보관해 놓고 살로넨 아줌마의 노점으로 갔다. 슬픈 표정을 한 일라는 아직까지 바구니를 쌓아 올리고 있었다.

“잠시 동안 일라와 함께 갔다 와도 괜찮겠읍니까?” 그는 아줌마에게 부탁했다. “우리는 스토크만 백화점에 가 보아야 할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살로넨 아줌마는 머리를 끄덕이며 승낙하였다.

“스토크만 백화점에, 오빠?” 일라는 서둘러 오빠를 뒤쫓아 가면서 물었다.

“그래, 빨리 가자.” 세포는 재촉했다. “다른 사람이 너의 특별한 초를 사가기 전에 말야.”

그런데 이번에는 일라가 눈을 반짝일 뿐 서두르지 않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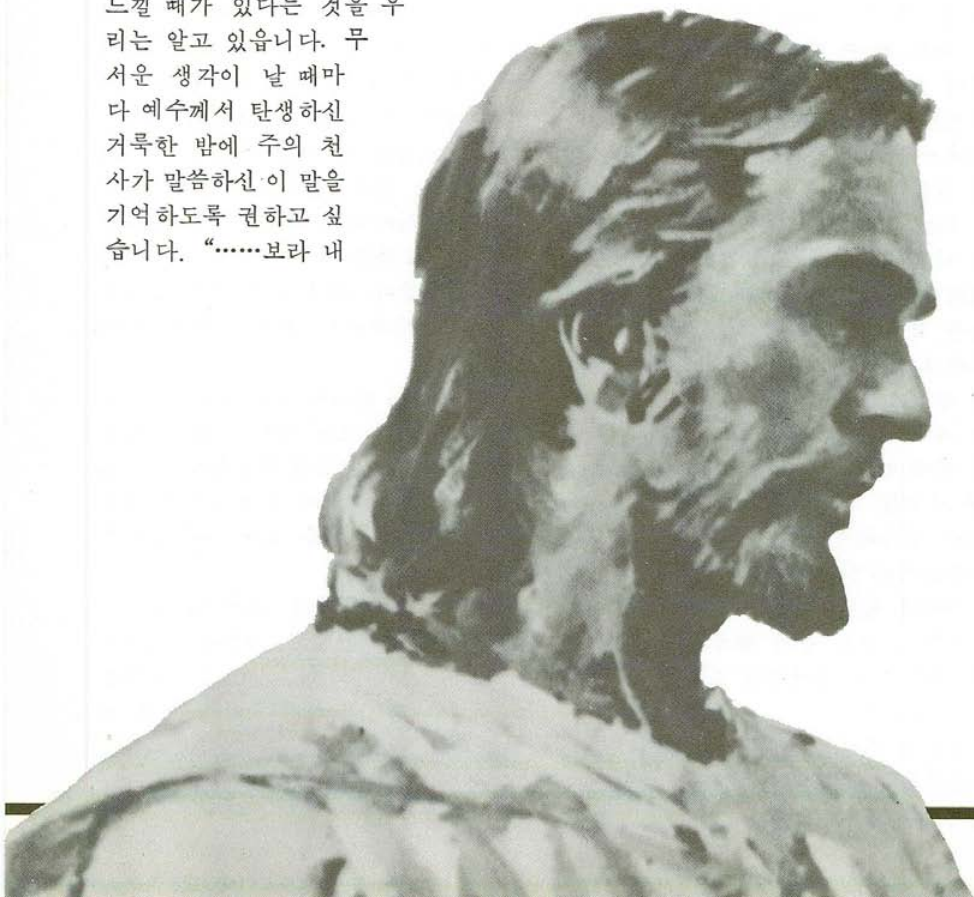
“무서워 말라”(누가복음 2:10)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밤에 베들레헴 근교의 들판에서 주의 천사가 목자에게 처음으로 이르던 말이었습니다.

또한 “무서워 말라”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께 드리는 대관장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 어느 시대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공포와 불안이 도처에서 물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러한 불안을 어린이 여러분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날 때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밤에 주의 천사가 말씀하신 이 말을 기억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보라 내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 11)

“무서워 말라”고 천사가 목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주께서는 또한 예언자이신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 두려워 말라. 나 주가 너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니라……(교성 68:6)

여러분이 어디에 있거나 무엇을 하거나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듯이 주님의 영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며 여러분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집이 심한 폭풍우 때문에 위협을 받았던 한 어린 소년을 기억합니다. 그 폭풍우에 대해서 라디오에서는 하루 종일 보도했습니다. 밤이 다가오자 그와 그의 어머니는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소년은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정전이 되어 라디오는 이제 침묵을 지켰고, 집은 점점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린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우리뿐이니 폭풍우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어머니는 소년에게 말하셨습니다. “알아요. 폭풍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라고 소

년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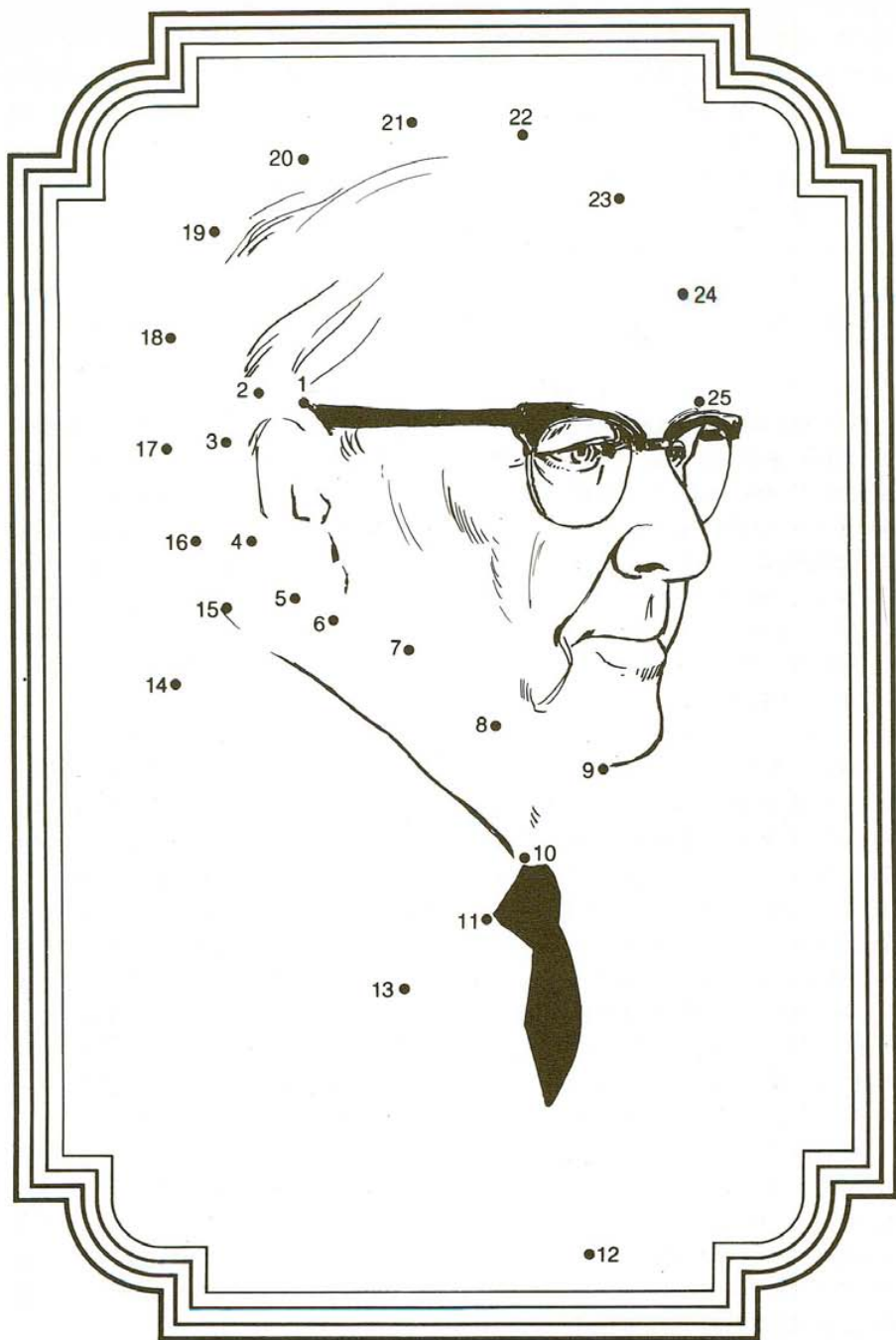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용기와 위안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폭풍우는 계속되었으나 잔잔한 평화가 그들에게 스며들었으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거나 보는 모든 예수탄생 장면에서 그가 초점이며 중심 인물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심 인물로 받아들인다면 평화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을 곤경에 빠뜨리는 주위의 환경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은 위로의 신앙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믿고, 항상 그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안과 평화를 주는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느낄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선물을 주고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 가장 고귀한 선물 곧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성탄절은 참으로 거룩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같이 기쁜 성탄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디모데 후서 1:7)

이 성탄절에 우리는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지금 그리고 늘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스펜서 더블류 킴볼

“하나님께서서는

계속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단다.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우리는 그 동안 씨를 뿌리고,

갈고 하여 수확을 하게 되었다.

이 땅은 주님의 땅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수확한 양의 10분의 1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수분과 햇빛을 주셨단다.”

그의 일생을 바쳐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우리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시면서 언제나 그와 함께 일하는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중요한 일에 열중하고 늘 친절하고 사려깊은 많은 행동을 한 그는 그를 접촉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을 받고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여기에 에드워드 엘 킴볼과 앤드루 이 킴볼 이세가 기록한 스펜서 더블류 킴볼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애리조나 태초에서의 킴볼 대관장님의 어린 시절의 경험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회와 복음은 스펜서의 어린 시절의 추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일학교나 성찬식 때면 어머니는 항상 우리들과 함께 네번째 줄에 앉곤 했습니다. 식사 전에는 기도하기 위해 의자를 뒤로 빼고……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었고, 어린이들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금식일과 십일조의 법은 빼놓지 않고 지켰습니다.

스펜서가 다섯 살 되던 해의 여름날, 아버지께서는 그와 그의 동생인 엘리스에게 감자밭 일부를 주었습니다. 깨끗한

작업복을 입은 스펜서가 정원용 쇠스랑으로 감자를 파내면 트레스를 입은 엘리스는 깨끗이 손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얻은 한 박스 가량의 감자를 붉은 웨건에 싣고 팔러 나갔습니다. 감자를 모두 팔고 스펜서와 엘리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번 돈을 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아버지인 앤드루가 말을 건넸습니다. “많은 돈이구나! 그래, 이제 그 돈으로 무얼 할 작정이니?” “아이스 크림과 과자 그리고 성탄절 선물을 살거예요.”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속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단다. 주님께서 도와 주셔서 우리는 그 동안 씨를 뿌리고, 갈고 하여 수확을 하게 되었다. 이 땅은 주님의 땅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수확한 양의 10분의 1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수분과 햇빛을 주셨단다.”

“아버지께서는 강요하지는 않으시고 다만 그것에 대해 저희들에게 똑똑히 설명해 주셨기에 십일조를 내는 것이 명예로운 특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라고 스펜서는 회고했습니다.

고든과 델(스펜서의 형)이 전초를 한 곳에 쌓는데……그들이 쇠스랑에 전초

“건초가 쌓였는데 위에서 뿔하는거야?”

를 가득 적어서 차 위로 던지면 스펀서는 마차 위에서 던져진 건초를 밟아 다졌습니다. 형들은 앞을 다투어 큰 건초더미를 마차에 던졌습니다. 한 형이 건초더미를 스펀서 머리 위에 던져 그를 넘어 뜨리게 만들면 다른 형은 그 위에 또 다른 건초더미를 던졌습니다. 스펀서가 더미를 헤쳐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고 놀려 댔으며 스펀서가 자랄에 따라 더욱더 스펀서를 화나게 만들고 위협한 장난으로 스펀서를 위협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형들을 골려 주기도 했습니다. 스펀서가 후에 한 이야기지만,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에, 들판 저쪽에서 들려오는 초등협회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스펀서가 “나는 초등협회에 가야만 해.”라고 말하자 “‘못 갈 거야.’라고 형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만 계셨다면 나를 초등협회로 가게 해주실텐데.’라고 말하자 그들은 ‘안됐군, 아버지도 안계시니 초등협회에 가려고는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고든은 나보다 7년 위고 벨은 5년이 위다…… 형들은 건초를 계속 던져 곧 마차 위에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습니다. ‘건초가 쌓였는데 위에서 뿔하는거야?’라고 형들이 말했을 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을 쳐다보았을 때 나는 이미 초등협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의 모자를 문열의 세면기 위의 걸이에 걸고 어머니를 불렀죠. ‘엄마, 엄마! 그러나 내가 곧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께서 왜 그러냐고 물으시면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지 보려고 그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스펀서의 마음에서는 좀처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올리브)께서 돌아가신 지 6년 후 아버지는 값진 진주 한 권을 선물하면서 “앤드루 킴블과 올리브 올리 킴블이 스펀서 올리 킴블에게 1915년 1월 15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책 표지 안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흠이 없는 성인이었으며……완전한 모범이었습니다.”라고 스펀서는 썼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나의 어머니가 갖지 못한 미덕을 한 가지 말할 자는 누구일까?” “그녀의 약간 붉은 색을 띤 머리카락을 통하여 비치는 빛이 후광을 만들었을 때” 그녀는 정말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펀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만, 스펀서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11살 때의 그가 본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

